

김려(金鑣)의 우만각시(牛鬲閣氏)*

- 경계에서 다시 쓰는 역사, 마음의 시학 -

안지민**

- I. 머리말
- II. '우만'의 경계성: 이민족 여신, 매개적 공간, 종족
- III. 역사 기술의 다른 방식: 북방 민중의 기억과 심성(心性)
- IV. 대안의 역사 지향: 꿈과 감응의 시학

<국문초록>

본고는 담정(澹庭) 김려(金鑣, 1766~1821)의 『사유악부』(思牖樂府) 120수에 나오는 '우만각시'(牛鬲閣氏)를 출발점으로 삼아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김려의 역사적·문학적 지향을 고찰한다.

'우만'이라는 용어는 『사유악부』, 『의당별고』(擬唐別藁), 『귀현관시초』(歸玄觀詩草)에 등장한다. 2장에서 살펴본 바, '우만'은 오랑캐 왕의 딸이었던 이민족 여신의 이름으로 변방 상인들의 여행길 안전을 기원했던 노제(路祭) 의례의 대상이었다. 또 '우만'은 조선 북방을 침략한 강성한 종족이자 부령 북쪽 10리에 있는 골짜기 지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다. 유교적 문인이었던 김려가 이처럼 타자성, 무속성, 역사성이 강하게 함의된 존재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사유악부』 내에서 변방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3장에서 『사유악부』 내 북방을 방어한 역사적 영웅들의 행적을 그

* 이 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장종미, 김필준 동학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울러 교정을 봐주신 이해진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린 시들을 대상으로 서술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웅들의 행적은 대체로 민간에서 전해지는 지명담·영웅전설·일화·무속의례·풍습에 의거해 증거되고 있으며, 그 담화 방식은 이민족을 포함한 북방 민중의 시각이나 기억에 의거한 것처럼 구성하면서 때때로 공식 역사 기록과 어긋나는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사유악부』가 변방 민중의 심성과 시적 주체의 감응을 통해 사실·합리·일방·공식·중심·기록보다는 진실·꿈과 상상·상호·비공식·주변·구술을 지향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120수는 이러한 문학적·역사적 지향 속에서 타자인 북방 민중 세계와 조우할 것을 예고·희망·상징한 시로 독해될 수 있다.

핵심어: 김려(金鑪), 『사유악부』(思牖樂府), 우만각시(牛鵬閣氏), 민중의 심성(心性), 경계, 대안의 역사, 꿈과 감응

1. 머리말

1797년 한 젊은 지식인¹⁾이 조선의 북쪽 끝, 부령(富寧)으로 유배를 갔다. 그 유배 경험은 이후 300수에 달하는 연작시인 『사유악부』(思牖樂府)를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었는데, 그 시들에는 김려와 내외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부령의 다양한 존재들이 출몰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존재들 중 『사유악부』 120수에 등장하는 ‘우만각시’(牛鵬閣氏)에 각별히 주목한다. 해당 시는 우만각시 무덤 근처에서 느낀 개인적인 감흥과 체험을 낭만적으로 그려낸 작품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면, 『사유악부』에서 이 시가 맡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1) 김려(金鑪, 1766~1821)는 1797년(정조 21) 11월 12일에 형조에 간혀 심문을 받고 이틀 뒤 함경북도 경원(慶源)으로 유배길에 오른다. 경원으로 향하던 중 11월 30일 유배지를 부령으로 옮기라는 명을 듣고 12월 10일 부령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약 3년 3개월을 지낸 뒤, 1801년(순조 원년) 3월 초3일 체포명을 받고 20일에 의금부로 끌려가 다섯 차례 형신을 받은 후 4월 20일 사형을 감하여 진해(鎭海)로 유배된다. 이에 대해서는 홍진옥, 『담정김려문학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40~47면.

과악할 수 없다. 따라서 김려가 왜 『사유악부』에서 ‘우만각시’를 특별히 호칭했는지에 대해 천착할 필요가 있다.

‘우만각시’는 과연 누구였던가? 흥미롭게도 『귀현관시초』(媿玄觀詩草)에 수록된 『우만각시 사당을 지나며』(過牛顰閣氏廟)와 『의당별고』(擬唐別藁)에 수록된 『황자과를 지나며 옛일을 슬프게 떠올린다』(過黃拓坡 懷古悵然)에 ‘우만’이란 이름은 또다시 등장한다.²⁾ 이 시들에서 ‘우만’은 ‘오랑캐 왕의 딸’(胡王女)로 명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북방 이민족과 조선의 갈등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지역성’을 가졌던 역사적 인물이거나, ‘지역’ 그 자체, ‘종족’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또 ‘우만각시’의 묘 앞에서 일종의 ‘노제’(路祭) 의식이 행해졌다는 정보도 추출할 수 있는 바, ‘우만’은 부령 지역의 무속적 제의와 관련된 이민족 여신이였음을 알게 된다. ‘우만’을 둘러싼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은 해당 시를 단순한 민속적 호기심이나 유교 문인의 낭만적 기호로 환원할 수 없게 만든다. 이는 북방 지역 특유의 역사성과 민중의 생생한 심성(mentalité)³⁾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 가운데 박준원(1984)은 담정의 시세계를 ‘민중에 관한 관심’, ‘여류 감정의 수용과 인간성의 긍정’, ‘역사와 풍속에 대한 시적 조명’이라는 세 측면으로 정리한 바 있다.⁴⁾ 박혜숙(1996)은 『사유악부』가 일반적인 통념을 벗어난 민중적 지향과 중세 권위를 부정하는 탈중심적 성향을 드러내

2) 시의 해당 원문과 번역은 본문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그 때 제시하기로 한다.

3) ‘민중’과 ‘망탈리테’ 개념을 결합하는 것은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다. 우선 ‘민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카를로 진저부르그가 지적했듯이 ‘망탈리테’는 계급적 구분을 초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카를로 진저부르그 저, 유제분 역, 『치즈와 구더기』, 문학과 지성사, 2004, 47~50면) 이 책에서 진저부르그는 계급의 차이를 무시하는 분석보다는 계급 개념에 따른 분석이 더 유효하므로, ‘집단적 망탈리테’보다 ‘민중 문화’라는 개념을 더 선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본고에서는 ‘민중’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부령민이라는 다층적이고 이질적인 존재들을 달리 지칭할 개념이 마땅치 않기에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사유악부』에 변방 민중들의 관성적(관습적)이고 불명료하며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무속, 전설, 일화 등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민중의 망탈리테(민중의 심성)”라는 개념이 분석의 유효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 박준원, 『담정 김려 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박준원의 논의 중 “역사와 풍속에 대한 시적 조명” 항목에서 김려의 시는 “역사를 중시하고 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면모”를 보이며 “풍속들이 사라져가는” 실태에 기록을 남기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간의 생활체험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특징을 거론하였다. 그러나 120수에서는 이러한 면모보다 오히려 그 풍경 속에 들어간 개인의 환상적 체험이 특수하게 나타나기에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며, 작가의 감수성과 맞물려 날카로운 현실 인식과 새로운 가치관의 모색으로 나아간다고 평가하였다.⁵⁾ 김경미(2008)는 여성과 관련된 김려의 시 몇 편을 분석하면서, “감정과 욕망의 세계 긍정”, “예교적 질서 아래 전형성을 가지거나 억압되어왔던 여성 정서 인정”,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주체적으로 실현”, “사회적으로 천시되어 온 계층의 여인들에게도 고결한 인간성과 자의식이 있음을 역설”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여성 인식은 근대적 의식의 발로로 해석되었는바, 이전 논자들이 제시한 견해와 크게 차별점이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⁶⁾ 이어 박혜숙(2020)은 『사유악부』를 기속악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분류한 뒤, 그 전반적 특질을 내용, 형식, 표현의 차원에서 검토하였고,⁷⁾ 홍진옥(2021)은 『사유악부』를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존재들에 대한 초상”이자 “이들에게 섞여 들어간 김려 자신의 자화상”, 그리고 “주변부 인물에 대한 김려의 심층적 공감과 인간 존재로서의 끝없는 긍정을 통해 높은 차원의 문학성을 획득한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그는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기생)에 대한 작자의 태도와 인식에도 주목하였다.⁸⁾

이후 박혜숙에 의해 연구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유악부』 완역서⁹⁾가 2022년에 간행되었다. 이로써 『사유악부』 전체의 윤곽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본고는 기존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우만각시’를 실마리로 삼아 작품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김려의 역사적·문학적 지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우만각시’에 주목해야 하는가?

첫째, ‘우만각시’ 시는 선행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유형의 시이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관심을 기울였던 대상은 당시 부령에 실제로 존재했던 여성

5) 박혜숙, 『담정 김여-새로운 감수성과 평등의식』, 『부령을 그리며(사유악부 선집)』, 돌베개, 1996. 박혜숙의 논의 중 『사유악부』에서 나타나는 ‘민중적 지향’은 소재와 내용 면에서 파악된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는 이 논의를 심화해 민속과 역사를 서술하는 김려의 태도와 시각에 있어서 어떤 점이 민중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피려 한다.

6) 김경미, 『여성주의적 독법으로 본 김려의 여성 인식과 시적 형상화』, 『페미니즘 연구』 8, 한국여성연구소, 2008.

7) 박혜숙, 『김려의 『사유악부』』, 『한국한시의 장르적 시각』, 소명출판, 2020.

8) 홍진옥, 『담정김려문학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83~100면.

9) 박혜숙, 『사유악부 국역 및 해제』, 국립한국문학관, 2022.

(기생)이나 민중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시였다. 반면, 우만각시는 살아 있는 존재도, 조선인 민중도, 기생도 아니었다. 그녀는 조선 북방 민중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여성이자 이민족이자 신적 존재로 등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시는 여성/남성, 지배층/피지배층과 같은 전통적인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난점을 지니고 있다.¹⁰⁾

둘째, ‘우만’과 관련된 시들은 북방 민속 의례와 그것이 행해진 장소의 구체적 실상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함경북도 민속은 현재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유악부』는 함경북도 민속의 한 단면을 파악하는 데 요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중 구술의 증거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이 텍스트는 한문학 연구뿐 아니라 민속학과 구비문학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 있는 자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만각시’ 시에는 김려의 역사적·문학적 지향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간 선행 연구를 통해 『사

10) 특히 홍진옥(앞의 논문, 96~98면)의 여성 유형화에 ‘우만각시’가 들어갈 자리는 없을 뿐 아니라 이 유형화는 기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유악부』의 여성들이 온전히 해명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홍진옥이 유형화한 여성(기생)은 ①대상 인물의 성품 칭송 ②대상 인물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작품 ③대상 인물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낸 작품 ④대상 인물이 당한 부당한 일을 비판하는 작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마지막 유형은 당대 하층 신분의 여성이 봉건적 질곡하에 살아가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선을 아울러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주의할 점은 김려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고귀한 인간적 가치를 조명하는 작품을 다수 창작했음에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로부터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본다. 첫째, 『사유악부』에서는 기생 외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하는바, 여성 분석 대상의 폭을 넓혀 정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유악부』에는 질이 나쁘거나 미덕 측면에서만 설명할 수 없는 여성(82수 김조이, 232수 임오조), 미덕이 있지만 남성 중심적이며 가문 중심적인 측면에서 거론된 여성(152수 최씨), 공식 기록과 어긋나는 일화를 가진 여성(150수 윤열부: 윤열부에 관한 이야기는 『여지도서』에 언급되는데 여기서는 남성이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부름에 있지 않았던 늙은 아내(245수 아내)와 여동생 등이 있는데 이 여성들은 모두 ‘소외된 인물에 대한 관심’의 측면을 벗어나 있고 작자의 태도와 인식이 다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 연회 관련 시에서도 ‘고마움’, ‘성품’, ‘추억’, ‘부당한 일에 대한 비판’에 비껴가는 시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홍수시(64수)’, ‘꿈 관련 시(86수, 294수)’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둘째, 김려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은 그것대로 사실이라 여겨지나,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평가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즉 역사적 의식 차원에서 보면 김려는 오히려 근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란 생각이 든다. 이는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결말에서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유악부』의 핵심이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고 여겨지지만, 북방 고유의 역사와 민속에 대한 김려의 지속적 관심은 아직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해당 시는 변방의 역사와 민속에 대한 김려의 감수성을 텍스트 그 자체를 통해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넷째, 『사유악부』 연구에는 텍스트에 대한 섬세한 분석뿐만 아니라, 작가의 의식과 특정 지역의 지역성 및 역사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총체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총체적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유악부』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가 쌓아놓은 성과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우만각시’라는 비교적 작은 부분에서 실마리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사유악부』 전체를 관통하는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우만각시’를 출발점으로 한 본고의 연구는 한문학과 민속학, 구비문학의 연결점을 모색하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국어국문학 각 세부 전공이 전문화되고 고립되면서 상호 연결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공 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점점 찾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는 학제적 관점에서 민속학·지역학·민중 생활사를 한문학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먼저 2장에서는 우선 ‘우만’과 관련된 시 3수를 검토하며 그 의미망을 다각도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만’을 ‘이민족’이라는 타자성, 변경의 역사적 공간성, 부령 고유의 신적 존재이자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교적 문인인 김려가 이러한 타자적·무속적·역사적 존재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유악부』 내에서 변경에 대한 역사 서술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3장에서는 김려의 역사적 지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살피기 위해, 북방 이민족 침입의 역사 속에서 오랑캐 침입에 공격을 세운 남성 영웅들에 관한 시를 분석한다. 이는 2장의 분석 결과가 3장과 어떠한 연결점을 갖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유악부』 전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유악부』에서 드러나는 김려의 역사적·문학적 지향성은 서술 주체가 민중의 심성과 상호작용하며 공식 역사를 넘어서 주관의 역사 실재를 구성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바로 이러한

지향성 속에서 ‘우만각시’는 특별히 호출되고 있는 것이다.

II. ‘우만’의 경계성: 이민족 여신, 매개적 공간, 종족

김려는 『사유악부』 120수를 통해 우만각시를 만난 환상적 체험을 기록해서 감미롭고 아득한 정취를 자아내는 시를 남겼다. 이 시를 읽으면 아주 먼 옛날에 살았던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낭만적’ 그리움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만으로는 시의 의미를 온전히 설명하기에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

시의 전문과 자주(自註)는 다음과 같다.

<120수>

- | | |
|-----------|----------------------------|
| ①問汝何所思? | 무얼 생각하나? |
| ②所思北海湄. | 저 북쪽 바닷가. |
| ③嗒鵲陂頭築石臺. | 방죽가 돌무덕에 까치가 깎각 |
| ④牛顰閣氏埋此谷. | 우만 각시가 이 골에 묻혀 있네. |
| ⑤谷中棠梨千萬樹. | 골짜기에 팔배나무 천만 그룬데 |
| ⑥春來開花花無數. | 봄이 오면 흐드러지게 꽃이 핀다네. |
| ⑦墳前石牀高尺餘. | 무덤 앞에 한 자 높이 석상이 놓였고 |
| ⑧更有石臺窪而窳. | 또 돌 술잔 우묵히 패여 있네. |
| ⑨我曾被酒牀上臥. | 예전에 술 취해 석상에 누웠다가 |
| ⑩夢見仙娥開寶座. | 꿈에서 신녀가 보좌(寶座)를 여는 것을 보았네. |
| ⑪一道紅燭照天來. | 붉은 등축 한 줄기 불빛 하늘을 비추는데 |
| ⑫兩行翠嬌拂香過. | 아리따운 여인들 두 줄로 향기 내며 지나갔지. |

陂在府北十里。牛顰，谷名。余別有記『牛顰神事』。

방죽은 부령부 북쪽 십 리 되는 곳에 있다. 우만은 골짜기 이름이다. 나는 따로 『우만신의 일을 기록하다』라는 글을 지었다.¹¹⁾ [밑줄은 인용자가 표시, 이하 동일]

11) 번역은 박혜숙 역, 『사유악부 국역 및 해제』, 국립한글문화원, 2022를 참조하여 인용자가 부분 수정하였다.

시 구절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사유악부』에서 매 시마다 반복되는 1, 2구가 선행된 후, 3구에서는 장소의 풍경(무덤과 까치)이 묘사되고, 4구에서는 무덤의 주인인 우만각시가 소개된다. 특히 3구의 “까치가 지저귐다”(啼鵲)라는 구절은 반가운 소식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감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후반부 9~12구에서 작자가 우만각시를 만나는 듯한 장면에 상응한다. 흥미로운 점은 부령 지역의 ‘까치’가 『사유악부』 67수와 73수에도 등장하는데, 이 시들에서도 까치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시적 상관물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즉, 『사유악부』에 등장하는 ‘까치’에는 민간에서 형성된 관념이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5, 6구에서는 팔배나무가 무성한 골짜기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팔배나무는 백양과 더불어 무덤 인근에 심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¹²⁾ 그러나 이 시에서 팔배나무는 단지 ‘죽음’만을 환기시키지 않는다. 팔배나무 꽃이 5월에 흐드러지게 핀다는 계절적 풍경의 제시는 봄의 생명력과 풍요로움 그 자체의 정취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묻혀 있다’(4구)는 구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죽음의 적막한 분위기를 소거된다.

다시 말해, 3, 4구에서는 인간 운명의 시간적 소멸과 한계성이 드러나는 반면, 5, 6구에서는 영원히 반복되는 자연의 풍성한 재생의 약속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우만각시 무덤은 생(生)과 사(死)의 교차 지점인 경계적 장소로서 무속적 생사관을 다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까치’의 의미 역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까치’는 살아있는 인간들의 소식을 전하거나 방문을 예고하는 존재를 넘어,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12) 백거이 시 「한식야망음」(寒食野望吟)에 “팔배나무 꽃이 백양나무에 비치니/ 이 모두 생사간에 이별하는 곳이니네.”(棠梨花映白楊樹 盡是死生離別處) 라는 구절이 있으며, 남효온(南孝溫), 「자정(子挺)의 처 민씨(閔氏)의 부음을 듣고」(聞子挺妻閔氏哀訃), 『추강집』(秋江集)에 “팔배나무 그늘 날로 짙어지는데/ 두견새는 맑은 낮에 슬피 곡하네”(棠梨日陰陰, 杜鵑晴晝哭)라는 구절, 「한식」(寒食), 권필(權鞮), 『석주집』(石洲集)에 “제사 마친 들판에 해는 이미 기울어/ 지진 훔날리는 곳에 갈까마귀만 운다. / 적적한 산길에 사람들은 돌아가는데/ 한 그루 팔배나무 꽃잎을 빗발이 때리누나.”(祭罷原頭日已斜, 紙錢翻處有鳴鴉, 山蹊寂寂人歸去, 雨打棠梨一樹花)라는 구절, 김택영(金澤榮), 「이경재 보경을 애도하다」(悼李耕齋保卿), 『소호당집』(韶濩堂集)에 “무덤에 두른 여러 그루 팔배나무”(繞塋棠梨多少樹)라는 용례가 보인다. (원문과 번역은 고전종합DB 참조)

다음 7, 8구에서는 무덤 앞에서 민간 제의가 행해졌음을 암시하는 풍경이 초점화된다. “무덤 앞에 한 자 높이 석상”(墳前石牀高尺餘), “돌 술잔 우묵히 패여 있네”(石甕窪而窳)라는 표현은 이 죽은 여성에 대해 모종의 민간 의식이 거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석상”(石牀)과 “돌 술잔”(石甕)은 제의의 흔적-사물로서, 매우 오래되고 견고한 느낌을 주어 무덤 주인에게 깊은 역사적 유래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시적 표현에 있어 ‘석상’의 높이(高)와 ‘돌 술잔’의 깊이(窪而窳)는 각각 위와 아래를 향하는 시선의 움직임을 유도한다. 이는 시 전반의 구도인, 아래를 지향하는 현실적 공간성과 위를 지향하는 초월적 공간성에 호응하며 무덤이라는 매개 공간의 특수성을 환기시킨다.

9, 10구부터는 작자의 꿈속 체험이 이어진다. 『사유악부』 전체가 진해에서 꾸었던 부령에 대한 그리움의 꿈이라면, 이 시는 꿈속의 꿈인 셈이다. 김려는 술에 취해 석상에 누운 후 꿈속에서 “선녀가 보좌를 여는 것을 보았다”(仙娥開寶座)고 회상한다. 이 구절은 구름이 옆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환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지는 구절 “붉은 등촉 한 줄기 불빛 하늘을 비추는데/ 아리따운 여인들 두 줄로 향기 내며 지나갔지”(一道紅燭照天來, 兩行翠嬌拂香過)에서는 마치 김려가 선녀로 부활한 ‘우만각시’를 만난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보좌에는 여러 선녀들이 모시는 우만각시가 앉아 있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다. 김려는 우만각시의 구체적 형상을 묘사하지 않고 자신의 꿈 체험을 서술함으로써 상상에 여지를 남긴다. 생과 사, 현실과 초월의 매개 공간에서 인간인 김려가 천상의 존재를 목도하는 이 장면은 일종의 무당(샤먼)의 영적 체험과도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도대체 ‘우만각시’는 누구인가, 이곳에서는 어떤 의식이 행해졌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김려의 『귀현관시초』, 『우만각시의 사당을 지나며』(過牛顰閣氏廟)를 통해 구체적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귀현관시초』는 1794~1817년, 『사유악부』는 1801~1802년 무렵 진해에서 창작된 것으로 추정¹³⁾된다. 김려는 『제귀현관권후』(題歸玄觀卷後)에서 1801년(신유년) 이전의 작품은 7~8수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그 이후에 지은 것이라

13) 홍진옥, 앞의 논문, 18면.

밝히고 있으나,¹⁴⁾ 어떤 작품이 신유년 이전에 창작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우만각시의 사당을 지나며』는 그러한 초기 작품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시는 『사유악부』보다 이른 시기에 쓰인 것으로, 기록의 사실성 면에서도 더 높은 신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시의 내용을 살펴보자.

① 婁約胡王女,	아리따운 오랑캐 왕의 딸
② 荒祠儼古松.	황량한 사당 오래된 소나무처럼 의연하구나.
③ 彫花鵝髻密,	꽃비너 꽃은 검은 쪽머리 촘촘하고
④ 繡竹蝶裙濃.	대나무 수놓은 나비 치마 짙푸르네.
⑤ 海峴燒檀潔,	바다의 무당(海峴) 단향 태워 정결히 하고
⑥ 邊방의 상인 제사밥 공손히 올리네.	
⑦ 高唐雲雨暮,	고당(高唐)의 구름이 비가 되는 해질녘
⑧ 猶想夢中容.	꿈속의 모습을 상상해보네. ¹⁵⁾

1구에서는 “오랑캐 왕의 딸”(胡王女)¹⁶⁾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우만각시’는 이민족 출신으로, 신격화되기 이전 현실 세계를 살았던 인간이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어지는 2구에는 “황량한 사당”(荒祠)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로 미루어볼 때, 무덤 근처에 사당이 있었거나, 120수에서 거론되는 ‘돌무더기’ 자체가 무덤이자 동시에 ‘서낭’의 기능을 수행했던 장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⁷⁾

14) “今此詩草，收拾辛酉以後若干首爲一寫，而辛酉以前，不過七八首云爾。” 『題歸女觀卷後』, 『瀟庭遺藁』 卷1, 한국문집총간 289, 407면.

15) 『過牛鄴關氏廟』, 『澹女觀詩草』, 『瀟庭遺藁』 卷1 한국문집총간 289, 402면.

16) 번역상 ‘오랑캐 왕의 딸’일 수도 있고, ‘오랑캐 왕의 여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17) 기존 연구에 의하면 ‘서낭’은 ‘성황’과 다르다. ‘서낭’은 돌무더기를 지칭할 때 쓰이는 말이며, ‘성황’은 사묘(祠廟) 형태로 띠고 있어 이 둘은 음의 유사성을 제외하고는 형태나 신앙 내용 및 신앙 주체가 구별된다고 한다. 즉, 성황은 문헌상이나 현지 민속상 대부분 건물 형태의 사묘나 신당을 의미하며 정기적인 마을 신앙으로 전승되어 주민들에게 마을 수호신으로 신앙되고 있지만, 서낭은 돌무더기 형태로 주로 행인들에 의해 여행의 안전을 기원 받는 노신(路神)으로 신앙되어 온다는 것이다. 박호원(2013), 『한국 마을 신앙의 탄생』, 민속원, 242~243면. 이에 의거하면 우만각시 사당은 돌무더기 형태를 띤 ‘서낭’의 성격을 띠었던 게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조선 후기 지방 사회에서 서낭당은 신당 형태로 건립되기도 하고 돌무더기 형태로도 되어 있었으며 조선 후기 서낭당은 ‘성황당’과 의미의 차이가 없이 혼재되어 사용된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당시 부령에는 성황사(城隍祠, 성황당)가 부령부

3, 4구는 우만각시의 외모와 복장을 묘사하고 있다. 이 묘사를 무당의 옷차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5구에 등장하는 “해격”(海覓)은 남자 무당을 지칭하는 표현이므로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홍양호(洪良浩, 1724~1802)는 『이계집』(耳溪集)에서 “북쪽의 풍속은 귀신을 좋아하며/ 남자 무당을 ‘사’(師)라 부른다”(北俗好鬼神, 男巫謂之師)¹⁸⁾고 기록한 바 있다. “해격”은 바로 홍양호가 언급한 남자 무당, 즉 ‘사’(師)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5, 6구는 이 지역에서 ‘노제’(路祭)가 행해졌음을 보여준다. 5구에서는 “해격”(海覓)이 의식을 주관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6구에서는 “변방의 상인들”(邊商)이 그 제의에 참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러한 제의는 북관개시(北關開市)¹⁹⁾나 장시(場市)²⁰⁾에 참여하거나 국경을 넘어 교역²¹⁾하려는 상인들의 안전한 여정을 기원하는 노제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우만각시는 ‘노신(路神, 거리의 신)’의 성격을 지닌 서낭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의식을 주관한 무당이 남성이었고, “해”(海)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우만각시의 신격에는 ‘해신’(海神) 또는 ‘물의 신’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²²⁾

서쪽 3리에 있었다. (“城隍祠在府西三里.”) 『부령도호부』(富寧都護府),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0, 고전종합DB참조.

18) 洪良浩, 『北塞雜錄』 ‘北俗’, 『耳溪集』 卷2, 한국문집총간 241, 21면. 임석제(『한국의 굿- 함경도 땅굿』, 열화당, 1985, 71~72면)에 의하면 강춘옥, 지급섬의 증언을 바탕으로 관북 지방 무속신앙은 북청 이남에만 분포되어 있고, 그 이북의 지역에는 접점이 북술가가 행식하는 의사무만 남아있다고 하였다. 김려의 시를 보면 부령 인근에 ‘覓’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된다. 또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함경남/북도편)에 의하면 함남과는 달리 “함북에는 무녀가 없고, 북술이라는 독경장이가 대부분”이라고 하였으며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자료에는 “함남은 무격이 598명, 남자 169명에 여자 381명, 여자가 2배 넘는 숫자인데 함북은 반대현상으로 172명 중 여자가 23명, 남자가 126명”이었다고 한다.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1, 89면.

19) 조선 후기 ‘북관개시’는 함경도 회령과 경원 지역에서 열렸다. 인조 15년(청 승덕 2)에 청의 군사적 압력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시작된 후, 청 관원에 대한 조선의 접대 부담 및 함경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되었으나 18세기 후반에는 개시로 인한 폐단이 상당히 시정되면서 보다 경제적 성격을 지닌 채 양국민 사이에서 운영되었다. 고승희, 『조선후기 북관개시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1, 조선시대사학회, 1997, 123~125면.

20) 19세기 초 종성, 길주, 명천 등지에서 장시가 개설되고 화폐 사용이 허용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상업의 제약이 점차 해소되었다. 고승희, 『18~19세기 북관개시의 운영과 성격』, 『한국사연구』 109, 한국사연구회, 2000, 50면.

21) 18세기 후반 국경지대에서 월경잠상 행위는 일상화되어 있었다. 위의 논문, 73면.

이와 관련하여 ‘우만’(牛羆)이라는 명칭은 ‘우만하’(牛滿河)에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홍양호의 『백두산고』(白頭山考), 『북새기략』(北塞記略)에 “우만하”라는 지명이 등장하므로, 이를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다.²³⁾ ‘우만하’는 러시아 원동(遠東區) 남부 흑룡강 좌안에서 두 번째로 큰 지류로 예조프산(埃佐普山)과 두세알린산(杜謝阿林山)에서 발원하여 좌·우 부레야강(布列亞河)이 합류한 뒤 남서쪽으로 굽이쳐 흐른다. 우만하 유역은 만족(여진족), 악륄춘족(鄂倫春族) 등 동북 여러 민족의 기원이 되는 지역이며 당나라 중엽(639년)부터 중국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었다.²⁴⁾

만일 ‘우만’이 ‘우만하’에서 유래한 이름이라면 ‘우만각시’는 바로 이 지역에서 유래한 여신이 남하하여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흘러들어 온 존재일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주지하듯, 만주 신화에는 여성 신격이 유난히 풍부하며, 전승에 따라 그 수가 300명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1930년대만 해도 만족(滿族)들은 씨족 제사를 지낼 때 늘 지고지상의 모신(母神)을 모셨으며, 그 여신들의 이름이 홍안령의 나무들만큼이나 많았다고 한다.²⁵⁾ 만일 부령 지역의 ‘우만’이 과거 여진족의 한 씨족이 거주하던 지대였다면, 이들이 모셨던 여신인 ‘우만각시’는 당시 여진계 씨족 사회에서 숭배되던 다수의 여신들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 즉, 우만각시는 단지 지역적 서낭신의 형태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여진족의 여성 신격이 조선 북방 지역의 민속적 맥락 속으로 흡수·변형되어 재신격화된 존재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만’은 민속 신앙의 대상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질적 문화와 민족 간 경계가 중첩된 상징적 존재로 읽을 수 있다.

22) 우만각시가 ‘물의 속성’을 가진 여신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만주족의 시조인 포고리 웅순의 엄마가 천녀인 불고를, 시조모신이자 창조신인 푸투마마(佛多媽媽, 버들마마), 아부카허허, 고구려 시조모인 유희가 똑같이 물의 속성을 가졌음을 상기시킨다. 이들 여신은 모두 ‘까치’, ‘신작’과 연결된다.

23) “...(중략)...흑룡강성에서 북쪽으로 90리 떨어진 곳에 이르러 정계리강(淨溪里江)의 물이 북쪽에서 흘러들어오고, 흑룡강성을 돌아 동남쪽으로 흐른다. 다시 남쪽으로 흐르다가 북쪽에서 온 우만하(牛滿河)를 받아들이고 또 동쪽으로 흘러 혼동강과 만나 여기에서부터 합류한다..” 洪良浩, 『白頭山考』, 『北塞記略』, 한국문집총간 242, 370면. 번역은 한국고전종합 DB참조.

24) <https://baike.baidu.com/item/牛滿河> 참조.

25) 이종주, 『만족(滿族) 신화 자료와 연구 신들의 본풀이, 만주 신화-『한족신화고사(漢族神話故事)』해설을 곁머리』, 『한국고전연구』 4,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384면; 富育光·王宏剛, 『薩滿教女神』, 遼寧人民出版社, 1995, 4~5면.

물론 여기서 ‘여진족 여신이 조선인에 의해 모셔지는 상황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능화의 『조선무속고』에는 “관북(關北) 지방에서는 대개 숙신각씨(肅愼閣氏)를 받드는데 이는 숙신씨의 옛터이기 때문에 그 신사가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마즈다 류우따께시 씨가 일찍이 이곳에 가서 민속을 시찰했는데, 나를 위해 이와 같이 말해주었다.”²⁶⁾라는 기록이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숙신씨는 상고시대 중국 동북에 거주하던 민족으로서 곧 여진족을 의미한다. 이 기록은 앞서 ‘우만’이라는 이름이 ‘우만하’에서 유래했을 가능성 및 우만하 지역이 여진족의 근거지였다는 점과 정보가 합치된다. 따라서 여진족 여신이 조선인에 의해 모셔지는 상황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으며, 좀 더 적극적으로 ‘숙신각시’가 바로 ‘우만각시’일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다.²⁷⁾

다음 7, 8구에서는 우만각시에 대한 상상력이 다시 한 번 『사유악부』 120수의 마지막 부분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휘된다. “고당(高唐)의 구름이 비가 되는 해질녘/ 꿈속의 모습을 상상해보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김려는 이민족 여신인 우만각시를 초나라 회왕과 만났던 ‘무산 선녀’의 이미지로 그려내고자 한다. 특히 “검은 쪽머리”라는 표현과 ‘해신’이었을 가능성은 우만각시를 마고신 혹은 마조신의 이미지²⁸⁾와 연관 지어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고는 ‘우만’이라는 고유명칭의 사용, ‘오랑캐 왕의 딸’이라는 명시적 언급, 마고선녀와는 다소 다른 형상 묘사 등을 근거로, 마고선녀가 아닌 북방 지역 고유의 이민족 여신이라고 판단한다. 덧붙여 해당 의식은 일반적인 굿과는 달리 ‘독경’의 방식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⁹⁾

그렇다면 우만각시의 제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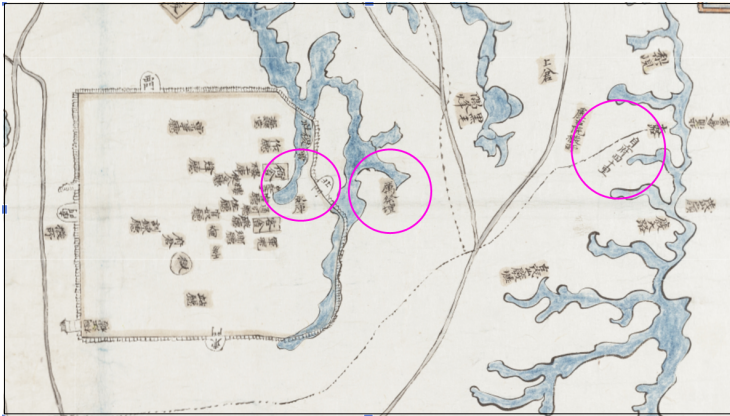
26) 이능화 저, 서영대 역주, 『조선무속고』, 창비, 2008, 402면.

27) 그렇다면 이 곳에 사당이 있었다는 것 또한 고려해볼 만하다. 이능화의 기록에 “신사가 남아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8) 한문 문헌에 나타난 마고의 형상은 “머리를 상투처럼 쪽지고 나머지 머리는 허리까지 드리운 18~19세의 아리따운 선녀”로 언급된다. 강민경, 『麻姑 신화의 수용과 전승 양상』, 『동방한문학』 86, 동방한문학회, 2021, 72~85면.

29) 한국의 무속인은 의례의 성격에 따라 굿하는 무당과 독경을 하는 경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굿과 독경 사이에 이질적 요소가 발견된다. 서대석,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소명출판, 2000, 23면.

『사유악부』 120수 자주(自註)에 따르면 ‘우만’은 ‘골짜기의 이름’으로 소개되며, ‘우만신’이 존재하였다는 사실³⁰⁾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우만’이 지명일 뿐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도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우만각시의 무덤이 위치한 방죽은 “부령부 북쪽 10리”(陂在府北十里)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 지도를 참고한다.



위의 지도는 1872년에 간행된 규장각 소장본 <부령부지도>(富寧府地圖)³¹⁾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본 지도에서 부령부 성곽의 ‘북쪽’ 지점은 화면 중앙에서 좌측에 위치하는데 붉은 원으로 표시하였다. 지도 우측에 표시된 또 다른 붉은 원에는 ‘부령부에서 40리’(自府四十里)라는 표기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령부 북쪽 약 10리에 해당하는 위치를 추정해볼 수 있다. 두 번째 붉은 원 안에 ‘여제단(厲祭壇)’이라는 명칭이 확인되며, 해당 지점 주변에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주(自註)에 등장하는 ‘방죽(陂)’이라는 공간적 단서와도 부합하는바, 우만각시의 무덤이 존재한다고 한 위치를 실증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원래 ‘여제’(厲祭)란 전쟁, 천재지변,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30) 세주에 나오는 “余別有記『牛躰神事』”에서 ‘牛躰神事’를 ‘우만신의 일을 기록하다’로 해석한 것에 대해 ‘우만의 신이한 일을 기록하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는데, 『사유악부』 254수의 세주에 “『寧山神詞』”(『영산신에 대해 읊은 글』)라는 용례가 보인다.

31) <부령부지도>, 청구기호: 奎10684 (간행년대: 1872)

사망한 원사자(冤死者)나 제사를 이어받을 후손이 없는 무주고혼(無主孤魂)을 위로하기 위한 진혼제(鎮魂祭)를 의미한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원사자나 고혼이 한을 품고 귀신이 되어 살아 있는 이들에게 재앙을 가져온다고 믿었으며, 국가적으로 재난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를 여귀(厲鬼)의 작용으로 간주하였다. 국가 또는 지방 관아에서는 이러한 재앙을 진정시키고자 여제를 거행하였고, 그 제사를 올리는 장소를 ‘여제단(厲祭壇)’이라 불렀다.³²⁾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여단은 부령부 북쪽에 있다”(厲壇在府北)³³⁾고 기록되어 있고 『세종지리지』(世宗地理志)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따라서 부령의 ‘여제단’은 세종대와 성종대 사이, 즉 15세기 중·후반 무렵에 설치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우만각시’의 무덤이 위치한 장소는 곧 ‘여제단’이 자리한 국가적 제의 공간과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양자는 모두 신성성과 금기를 공유하는 장소로, 민간 및 관(官)의 제의 행위가 집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만’이라는 장소가 가진 국가적 제의와 민간 신앙의례가 중첩된 공간적 성격은 김려의 역사적·문화적 감수성이 발생하는 배경적 토대의 이해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식적 역사나 제의 체계에서 배제되었거나 억눌린 존재들을 특별히 호출하여 달래고 기리는 ‘여제단’이라는 공적 제의 공간, 그리고 민간의 경제와 함께 작동하는 사적 제의 공간이 중첩된 장소에서 김려는 ‘우만각시’를 호명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만’이 언급된 마지막 시 하나를 더 검토하기로 한다. 시는 『의당별고』(擬唐別藁)에 수록된 『황자과보를 지날 적에 옛날을 슬프게 회상하네』(過黃拓坡, 懷古悵然, 擬驅馬擊長劍, 陶員外翰)³⁴⁾이다. 이 시는 당나라 도한(陶翰) 원외량의 시 『소관을 나오며 회고하다』(出蕭關懷古)³⁵⁾

32) 박호원(2013), 위의 책, 317면.

33) 『부령도호부』(富寧都護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0권, 고전종합DB 참조. ‘신증’이라는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국여지승람』에도 같은 기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여제’는 성종 때부터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34) 『過黃拓坡, 懷古悵然, 擬驅馬擊長劍, 陶員外翰』, 『擬唐別藁』, 『蕙庭遺藁』 권3, 한국문집총간 289, 429면.

35) 驅馬擊長劍, 行役至蕭關. 悠悠五原上, 永眺關河前. 北虜三十萬, 此中常控弦. 秦城亘宇宙, 漢帝理旌旄. 刁門鳴不息, 羽書日夜傳. 五軍計莫就, 三策議空全. 大漠橫萬裏, 蕭條絕人煙.

를 모방하여, 온성 지역의 옛일을 회상해 지은 작품이다. 제목에 등장하는 ‘황자과’(黃拓坡)³⁶⁾는 조선시대 6진에 속한 29진보의 하나³⁷⁾로, 세종 때 온성에 있던 북방 주요 방어지였다.³⁸⁾ 김려는 이 일대를 지날 때, 여진족이 득세했던 역사를 떠올리며 ‘우만’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 번 소환한다. 이번에는 신화적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역사 안에서 ‘우만’이 호출되고 있는 것이다.

- | | |
|---------|-----------------------|
| ①一劍鳴千里, | 한 개의 검이 천리를 울리자 |
| ②行行戾海嶺. | 행군하여 바닷가에 이르렀네. |
| ③邊氣日蕭條, | 변방의 기운 날로 싸늘해지는데 |
| ④飛沙漫空赤. | 날리는 모래 붉은 허공에 가득하네. |
| ⑤女眞數十萬, | 여진족 수십 만 |
| ⑥此地曾狼藉. | 이 땅에 일찍이 드글거렸지. |
| ⑦石青尼湯祭, | 석청으로 만든 이탕(尼湯)의 화살촉. |
| ⑧鋼黑牛鄴戟. | 강혹으로 만든 우만(牛鬲)의 창 |
| ⑨至今丘壘道, | 지금까지도 언덕 길은 |
| ⑩盡耕勾驪貉. | 온 밭이 우리 백성들의 해골. |
| ⑪賈傳味五餌, | 가의(賈誼) 태부의 우매한 오이책 |
| ⑫莊尉拙三策. | 엄우(嚴尤) 태위의 졸렬한 삼책. |
| ⑬克壯金丞相, | 장대하구나! 김승상(김중서)! |
| ⑭威聲何翕赫. | 위엄있는 명성 어찌면 그리도 성대한가. |
| ⑮長驅壽其穴, | 계속 몰아쳐서 여진 소굴 쳐부수니 |
| ⑯所向無遺畫. | 가는 곳마다 세운 방략 빈틈이 없네. |
| ⑰腥羶淨掃盪, | 비린내 누린내를 깨끗이 소탕하고 |

孤城當瀚海，落日照祁連。槍突「苦寒奏」，懷哉「式微」篇。更悲秦樓月，夜夜出胡天。

36) “온성부는 동쪽으로 경원부와의 경계까지 35리. 서쪽으로 종성부와의 경계까지 37리. 남쪽으로 바닷가까지 2백 61리. 북쪽으로 두만강까지 5리. 관아의 동쪽 27리에 있다.” 113면에는 “중종 18년(1523)에 설치했다” 김우철 역주, 『함경북도북병영소관온성도호부읍지』, 『여지도서 함경도』, 흐름, 2009, 99면.

37) 『제승방략 해제』, 『국역 제승방략』,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38면.

38) “黃拓坡堡屬穩城-西距穩城二十五里，東距訓戎二十三里，北距美錢二十五里。城周曰一千九百九十尺，女牆一百三十，擁城二，曲城四，泉井一，有東南門。土兵五十六名，南方赴防軍士十五名。弓子一百八十張，長箭四百十部，片箭四百五十七部。” 『국역 제승방략』,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45면; 『制勝方略』(정구기호: 奎貴132), 21a면.

- ⑱ 險阻曠開拓. 험준한 북쪽 땅 널리 개척했지.
 ⑲ 豆滿江上月, 두만강 위의 달은
 ⑳ 留照澄波碧. 맑고 푸른 파도를 비추네.³⁹⁾

1구~4구까지는 13구에서 언급되는 ‘김종서’의 6진 개척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개의 검이 천리를 울리자”(一劍鳴千里)라는 구절은 김종서의 위엄 있는 모습을 ‘검’으로 제유한 것이다. ‘운성’은 김종서가 개척한 6진 가운데 하나로, 조선의 북방 방어선 구축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었다. 또한 이 지역은 1583년에 발생한 이탕개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신립이 부사로 재직했던 곳이기도 하다.

6진 개척은 1433년(세종 15) 건주좌위(建州左衛) 오도리족(斡朶里: Odoli, 초원 지대에서 농경을 하던 종족)이 내지 우디캐족(兀狄哈: 산악·산림 지대에서 수렵하던 종족)의 침략을 받아 대추장 통명거티무르(童孟哥帖木兒) 부자가 피살당하는 사건에서 비롯된다. 세종은 이 사건으로 두만강 일대의 여진 세력에 권력 공백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이를 조선의 국경 방어선 확대의 기회로 간주하고 좌승지 김종서를 파견해서 본격적인 6진 개척에 착수하게 한다.

6진 개척은 단순한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았다. 두만강 일대에 거주하던 여진족을 조선의 호적에 편입시켜 동화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후방의 조선 농민들을 단계적으로 이주시켜 경원, 회령, 종성, 부령, 경흥, 운성 등 6개의 진을 중심으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갔다.⁴⁰⁾ 이주된 백성들은 농기구와 병장기를 휴대했으며 개간과 함께 경계 업무, 석성(石城) 및 소보(小堡)의 축성에도 동원되었다.⁴¹⁾ “행군하여 바닷가에 이르렀다”(行行戾海濱)는 시구는 세종의 명에 따라 군사와 백성이 함께 동원되어 국경 개척과 방비가 이루어진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의 ‘사민’ 정책은 북청 이북과 길주, 경성 등의 주민들을 두만강 유역으로 이주시킨 후, 그 공백지를

39) 번역은 김려 저, 오희복 역, 『글짓기 조심하소』, 보리, 2006, 414~415면을 참조하여 부분 수정하였다.

40) 김구진, 『조선 시대 女眞에 대한 정책』, 『백산학보』 88, 백산학회, 2010, 279면.

41) 한성주, 『조선의 對女眞關係와 6鎭지역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49, 한일관계사학회, 2014, 15면.

다시 고원, 영흥, 문천, 안변 등 강원 및 하삼도의 백성들로 채우는 이중적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인구 재배치를 동반했다.⁴²⁾

3, 4구의 “변방의 기운 날로 싸늘해지는데/ 날리는 모래 붉은 허공에 가득하네”(邊氣日蕭條, 飛沙漫空赤)를 통해 척박한 풍토로 인해 변방을 개척하는 일이 녹록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다. 변방이라는 공간의 엄혹함을 부각함으로써, 그곳에 파견된 군사와 이주민들이 겪었을 고된 삶의 현실이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6구에서는 6진 개척이 시작되기 이전, 해당 지역이 여진족의 세력 하에 놓여 있었음을 회고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온성’은 본래 고려의 땅이었는데, 중간에 야인(野人)이 또한 그 땅이 빈 것을 틈타 들어와 살면서, 이름을 다온평(多溫平)이라 하였다.”⁴³⁾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야인’(野人)은 당시 조선의 북방 이민족, 특히 여진족을 지칭한다. 이들이 온성을 점유하고 그 땅에 새로운 지명을 붙였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일정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여진족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뜻한다.

7, 8구에서는 이 여진족을 ‘이탕’(尼湯)과 ‘우만’(牛蠻)으로 환언해서 부르고 있다. 오희복 번역본 각주에는 “15세기경 우리 나라 북쪽에 있던 여진의 종족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⁴⁴⁾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종족 이름이라 해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이탕’, ‘우만’은 여진족의 실존 인물을 ‘여진족’으로 제유하여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이탕’은 다음아닌 ‘이탕개’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만’ 역시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⁴⁵⁾

7구에 등장하는 이탕의 ‘석청으로 만든 화살’은 숙신 또는 여진족이 사용한 무기를 가리킨다. 홍양호는 『이계집』 卷14, 『숙신씨의 돌살촉에 대한 기

42) 위의 논문, 14면; 『세종실록』 15년 12월 경오; 17년 6월 갑진.

43) “本高麗地, 中間野人亦乘虛入居之, 號多溫平. 【溫、穩聲相近, 取穩以名之.】「穩城都護府」, 咸吉道, 『세종실록지리지』 권155, 국사편찬위원회 DB.

44) 김려 저, 오희복 역(2006), 앞의 책, 414면.

45) ‘우만’(uman)은 만주어로 ‘치조, 잇몸’(齒槽, 牙床)이나 ‘발굽 안의 부드러운 부분, 발굽심(蹄心)을 뜻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가마 민족 그 자체를 연상시키고 있는 듯 하여 흥미롭다. 또 ‘니탕’은 만주어로 ‘담백하다, 묽은, 얼은, ‘칼에 강철이 적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명나라와 조선으로부터 철기 수입에 의존했던 여진족의 한 면모가 이름에서 확인되는 듯하다. 河內良弘 편저, 『滿洲語辭典』, 松香堂書店, 2018, 878; 1165면.

문, 『肅愼氏石祭記』에서 『산해경』의 기록을 인용하여 “숙신의 화살촉은 석청으로 만든다.”(石靑爲鏑)라고 기록한다. ‘석청’은 흑룡강 일대에서 산출되는 광석으로 중국에서는 이를 ‘고시’(楛矢), ‘석노’(石柎)라 부르며 그 위력을 두려워했다고 한다.⁴⁶⁾

8구의 “강혹으로 만든 우만의 창”(鋼黑牛顰戟)은 다소 질이 낮은 철로 만든 여진족의 철무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여진은 명나라와 조선과의 교역을 통해 철을 확보했고, 이를 농구 등으로 들여온 후 무기로 재가공하여 15세기 후반 이후 군사력을 크게 강화했다.⁴⁷⁾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들의 무기가 교역을 통해서 철제로 변화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⁴⁸⁾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만’은 외부에서 철을 수입해 무기를 제작하며 성장한 여진족의 일파 혹은 세력을 가리키는 명칭일 가능성도 있다.

9, 10구에서는 여진족의 끊임없는 침입의 역사를 “우리나라 군사들의 해골로 가득하다”(盡耕勾驪骼)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온성 일대가 이민족의 침입과 갈등 속에서 얼마나 시달려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11, 12구에서는 이민족 문제에 대한 고전적 사례로 중국의 한나라 ‘가의’와 ‘엄우’를 언급한다. ‘가의’ 태부의 우매한 오이책(賈傳昧五餌)은 장사왕(長沙王)의 태부였던 가의가 흉노 회유책으로 제안한 ‘삼표오이’(三表五餌)⁴⁹⁾를 이른다. “엄우 태위의 졸렬한 삼책”(莊尉拙三策)은 엄우가 역대의

46) 김구진, 『조선시대 6진 방어전략 『제승방략』 체제 연구』, 『백산학보』 71, 백산학회, 2005, 373면; 『大明一統志』권89, 外夷 女眞 土產條, 『대명일통지』 여진족 토산 조에는 “楛矢. 石柎: 黑龍江口出, 名水花石, 堅利入鐵, 可鏃矢鏃. 土人將取之, 必先祈神.” 한편, 최치원의 『고운당 필기』(古芸堂筆記) 권4 『弩矢』에는 “女眞矢用柎, 未必犀利過於鐵, 其實乏鐵故也. 或云: “弩鏃入肌卽折, 難於挑出, 隣敵畏之.” 此或似然. 北人耕田, 往往得之, 吉州之野最多, 或插於髑髏, 可知爲曷懶甸古戰場也.” 라고 나와있다.

47) 남의현, 『多元的 經濟構造를 통해 본 女眞社會의 特徵 -15~17세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5, 인문과학연구소, 2012, 239~241면; 劉世哲, 『明代女眞物產輸入機轉』, 『黑龍江文物叢刊』, 1984年 第4期, 『明代女眞機種物產輸出述議』, 『民族研究』, 1984年 第6期 재인용

48) 남의현(2012), 앞의 논문, 247~248면; 『조선왕조실록』, 중종 11년 5월 경술.

49) 賈誼, 『匈奴』, 『新書』 권4, 四部叢刊本. ‘삼표’는 신의를 세우고, 오랑캐의 모습을 사랑하고, 오랑캐의 재주를 아껴주는 것(立信義, 愛人之狀, 好人之技)을 말하며, ‘오이’는 “의복과 거마, 맛있는 음식, 음악과 여인, 으리으리한 집과 창고 및 노비를 주고 친근하게 대하고 어루어서 (賜之盛服車乘, 盛食珍味, 音樂婦人, 高堂邃宇府庫奴婢, 親近安撫) 만족시켜주는 것을 이른다.

왕조가 쓴 소수민족 책략을 평가한 일을 언급한 것이다.⁵⁰⁾ 두 인물 모두 뛰어난 책략가였으나 이민족 문제 해결에 실패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김려는 이러한 중국의 인물들과 대비되는 인물로 13구에서 ‘김중서’를 내세운다. 그는 북방 여진족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위대한 인물로 칭송된다. “가는 곳마다 세운 방략 빈틈이 없었다”(所向無遺畫)는 구절은 그의 방책이 변경 안정에 큰 기여를 했음⁵¹⁾을 회고하는 표현이다.

이 시에서 주목할 점은 북방 변경의 여진족 침략이라는 역사적 회고 안에서 ‘우만’이 조선을 위협한 강성한 여진족 집단으로 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살핀 바와 같이, ‘우만’은 『귀현관시초』에서 ‘오랑캐 왕의 딸’이자 변방 상인들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는 아름다운 ‘노제의 거리신 혹은 해신’으로, 『사유악부』 120수에서는 죽은 여인이자 여신, 부령부 북쪽 10리에 위치한 골짜기 이름으로 등장하며, 『의당별고』에서는 조선 북방을 침략한 강력한 ‘여진족’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만각시’가 민간 신앙뿐 아니라 현실 사회의 안전과 치안, 국가 의례, 경제적 교역 등과도 연결되는 존재임을 알려준다. 김려는 이렇듯 다층적 의미망을 내재한 ‘우만각시’를 『사유악부』 120수에서 만나고 있다. 이는 『사유악부』의 의식이 끊임없이 경계, 이민족, 민속, 경제, 안보, 권력과 교차하는 복합적 공간과 현실을 향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50) 班固, 『匈奴傳』下, 『漢書』에 의하면 엄우가 왕망에게 흉노를 공격하면 안된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은 흉노가 해가 된지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들었지만, 상고 시대에 반드시 흉노를 정벌하는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후대에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가 이들을 정벌했지만 모두 상책을 얻지 못했는데, 주나라는 중책을 얻었고, 한나라는 하책을 얻었고, 진나라는 책략이 없었습니다.”(臣聞匈奴爲害, 所從來久矣, 未聞上世有必征之者也. 後世三家周、秦、漢征之, 然皆未有得上策者也. 周得中策, 漢得下策, 秦無策焉.) 그러나 왕망은 그 견해를 따르지 않아 결국 흉노에게 패한다.

51) 김중서는 관찰사와 도절제사로 15년 동안 함길도에 있으면서 6진 개척 및 성보(城堡)를 수축하고 병사를 배치하고, 활(弓子)·장전(長箭)·편전(片箭) 같은 무기를 준비하고, 봉수(烽燧) 체제를 마련하여 진보(鎭堡) 연락 체제를 구축하고, 적의 침입을 지키는 수호·적을 망보는 망대·나무지기(梁直) 등을 설치해, 6진을 수비하는 방략을 마련하였다. 또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적을 추격하는 추격처·적을 맞아서 요격하는 요격처·적편이 있을 적에 진보끼리 서로 구원하는 곳·아군을 북명시키는 곳·적의 동태를 정탐하는 곳 등을 일일이 조사하여 설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현존하는 『제승방략』(制勝方略)에 남아 있다. 김구진, (2005), 앞의 논문, 284면.

주목해야 할 점은 ‘우만’이라는 존재가 ‘변방의 역사성’, ‘무속(민속)성’, ‘이민족이라는 타자성’을 강하게 함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교적 문인인 김려가 120수에서 이러한 존재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고 체험적, 낭만적으로 반응한 것이 흥미롭다.⁵²⁾ 물론 김려가 살았던 시기 ‘무당, 무속’, ‘지방’, ‘이민족’에 관심을 드러낸 문인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⁵³⁾ 또 김려가 낯선 것, 변방의 것, 타자의 민속을 무조건적으로 친밀하게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가령, 『사유악부』 133수에서는 재가승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⁵⁴⁾이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어째서 ‘우만각시’에 대해서는 그토록 다른 감성을 보이고 있을까? ‘우만각시’는 조선 변경의 복합적인 현실의 경계-지리-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면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52) 그의 무속에 대한 관심은 『황성이곡』(黃城俚曲)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배타적이거나 우월적인 시선은 찾을 수 없다. 『황성이곡』에는 무당에 관해 2편의 시가 나온다. ① “돌무덕은 단풍나무 주변에 모아놓고/ 울긋불긋 색 형경 가지마다 걸어놔네/ 해사한 시골 무당 적이 멧쩍은 듯/대낮에 한길에서 방울만 흔드누나.”(礫石叢隴逸禿楓, 枝頭掛綵散靑紅. 村巫玉面含羞澀, 白晝揚鈴大道中.) 경천역으로 가는 도중에 이가 새하얗고 붉은 입술을 한 무당 하나를 만났는데 오른손으로 방울을 흔들고 왼손에는 수건을 들었다. 무척을 뿔아 느릿느릿 노래를 부르는데 몹시 처당했다. (擎天道中, 見一巫皓齒朱唇. 右手揚鈴, 左手執幡, 延囁徐謳, 聲甚淒楚.) 김려 저, 오희복 역(2006), 앞의 책, 451면 참조해서 부분 수정. ② 시골 무당 옥같은 얼굴과 눈같은 피부/ 버들 모양처럼 가느다란 허리 질끈 묶고/ 녹색 비단 장삼 붉은 단장 했는데/ 부인사 안에 신에 내려 오네. (野巫頰貌雪膚脂, 柳樣纖腰強一圍. 綠錦長衫紅粉套, 夫人祠裏降神歸.) *고려조 건훤을 정벌하던 때, 한 노파가 해몽을 잘해서 봉하여 부인으로 삼았다. 일은 읍지에 실려 있다. 부인의 묘는 계전리에 있다. (麗祖征甄萱時, 有一嫗善解夢, 封爲夫人. 事載邑誌. 夫人廟在葵田里.) 특히 ②의 시와 세주를 보면 무속과 역사적 관심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을 요한다.

53) 이옥(李鈺)과 홍양호(洪良浩)의 경우 지방 무속, 무당에 관한 언급들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부정적, 우월적, 폄하적 시선과 태도가 내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봉성문집』(鳳城文餘), 「사당」(社黨), 「무당굿」(巫祀), 「황당한 무가」(巫歌之詠)에 관한 글(『이옥전집』, 실사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휴머니스트, 2009, 74~77; 123~126면)로 일찍이 박현숙(『이옥 소품문의 작품 세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3~35; 74면)은 이옥의 유희적 태도 및 폄하적 시각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다. 후자의 예로는 洪良浩, 「北俗」, 『北塞雜錄』, 『耳溪集』 권2, 한국문집총간 241, 21면을 들 수 있다. 홍양호의 북쪽 남파 무당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사(師)란 못사람이 존경하는 바이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이름을 얻었나. / 맹인 악사는 점치는 것 가르치고/ 선사는 염불이라도 가르치지. / 괴이하구나 누가 너의 재주 배우랴 / 무덤에서 얻어먹어 겨우 한 끼 배불리거늘/ 세포며 면사는 어디에서 나오는지”(師者衆所尊, 爾名焉取斯. 瞽師教卜筮, 禪師教念佛. 怪底人誰學爾術, 播問酒食僅一飽. 細布綿絲從何出.) 라고 하고 있다.

54) 133수: “問汝何所思, 所思北海濶. 南石寺僧摘禾黍, 釀黍爲酒送嫁女. 賀客環坐維僧凡, 烹狗殺豬口爭饑. 黃紙婚書書名字, 何以盛之赭漆椀. 剃頭光面磨瘡, 一聲南無猶念佛. 聖化文明漸寰宇, 宇內那得容此物. *南石寺名. 北僧皆有妻養子, 名曰在家僧. 主人徐翁娶侄女爲子婦.”

살펴보았듯 ‘우만’은 민간 신앙의 대상인 이민족 여신이자, 국가적 제의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과 민간 신앙의 사적 공간, 삶과 죽음, 무속과 역사, 현실과 초월이 중첩된 이중적 매개항을 가진 지리적 실체이며,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었던 여진족의 한 부류로서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표층에서 120수는 부령 지역의 한가로운 유적지에서 펼쳐지는 개인적 꿈의 체험을 시화한 것으로 보이나, 심층에서는 복잡한 북방의 현실과 경계-혼종 공간에서의 타자 호출이라는 깊은 상징성을 띤다. 김려가 꾸는 낭만적인 표면의 꿈속에는 기실 북방 이민족에 대한 조선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진하게 잠들어 있는 것이다.

이제 거울을 뒤집어 볼 차례다. 다음 장에서는 『사유악부』에서 김려가 변방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는지 고찰해 봄으로써 2장에서 분석한 사실들과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

III. 역사 기술의 다른 방식: 북방 민중의 기억과 심성(心性)

김려는 『사유악부』에서 북방 개척의 역사와 관련된 시 10수를 남겼다. 91수에서는 인간의 죽음과 동북 야인에 대해, 230수에서는 신숙주의 오랑캐 정벌을, 242수에서는 온성부사 신립과 이탕개의 난을, 249수에서는 고려 명장 윤관의 변방 평정을, 253수에서는 남이 장군과 이시애의 난을, 254수에서는 구성군 이준의 곳과 이시애의 난을, 259수에서는 조규와 이시애의 난을, 260수에서는 원군의 부령부사 시절 활약과 이순신과의 비교를, 284수에서는 김종서의 6진 개척을, 285수에서는 정도호 부령도호부사를 다루고 있다.⁵⁵⁾

55) 이의 “길주 백담평에서 왜적을 쳐부수고, 미진보에서 오랑캐를 사로잡은” 황수를 다룬 181수가 있는데 이 시까지 합하면 총 12수이다. 그러나 이 시는 임진왜란을 다루었으므로 분석에선 일단 제외한다. 한편, 여진족 오석촌 말 유물을 다룬 시 182수도 유념해둘 필요가 있다. 182수의 경우 김려가 이 땅에 여진족이 살았다는 것을 깊게 체감하고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관련해서는 149수 부사 원희 168수 정문부, 201수 정문부, 207수 이단하/정문부, 218수 정문부 외 다섯 호랑이, 219수 차세 집 세 장사와 네 명 용사, 229수 유흥과 관련한 시가 있다.

이를 다시 시간 순서대로 재편해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번호	『사유약부』	역사적 인물과 사건	시기
(1)	249수	고려 윤관의 여진 정벌과 9성 구축	1107년(고려 예종 2)
(2)	284수	김중서 6진 개척	1433~1450년 (세종 15~32)
(3)	230수	신숙주의 오랑캐 정벌	1459년(세조 5)
(4-a)	253수	남이장군과 이시애의 난	1467년(세조 13)
(4-b)	254수	구성군 이준과 이시애의 난	1467년(세조 13)
(4-c)	259수	조규와 이시애의 난	1467년(세조 13)
(5)	242수	온성부사 신림과 이탕개의 난	1583년(선조 16) 1월~ 8월
(6)	260수	부령 부사 원균의 활약(+ 임진왜란)	1592년 이전~1597
(7)	91수	이간의 죽음과 동북 야인	1600년(선조 33)
(8)	285수	부령 부사 정도호의 활약	1717~1719년 (숙종 43~45)

한 눈에 보아도 북방 방어와 관련된 역사적 주요 사실들을 거의 빠짐없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김려가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1) 249수를 보자.

<249수>

- | | |
|-----------|----------------------------------|
| ①問汝何所思, | 무얼 생각하나? |
| ②所思北海湄. | 저 북쪽 바닷가. |
| ③前朝名將尹文肅, | 고려의 명장 문숙공 윤관 |
| ④躍馬征胡靜邊壘. | 말 달려 오랑캐 처서 변방을 평정했네. |
| ⑤鞞鞫遠遁野人悲, | 말갈은 멀리 숨고 여진은 슬퍼하니 |
| ⑥功名不讓古徐熙. | 공적과 명성이 서희에 못지 않네. |
| ⑦鍊門關口豎降幡, | 철문관 입구에 항기 꽂았고 |
| ⑧先春嶺頭勒豐碑. | 선춘령 마루에 큰 비석 ⁵⁶⁾ 새겼네. |
| ⑨微爾東方幾左袵, | 그대 아니었다면 우리 동방 미개한 땅 되었을 터 |
| ⑩卽今藩胡猶惶惶. | 지금도 <u>번호들 두려워 떨지.</u> |

56) 고려의 정계비(定界碑)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①侍中臺前統軍處, 시중대 앞 통군산은
 ②海波如眠天如錦. 바다 물결 고요하고 하늘이 비단같네.

(文肅名璣, 高麗侍中, 初拓北路. 先春嶺在寧古界. 侍中臺、統軍山, 并在北靑.)
 문숙공 윤관은 고려 시중인데, 처음 북방을 개척하였다. 선충령은 영고담 경계에 있다. 시중대, 통군산은 모두 북청에 있다.

김려는 이 시에서 고려 시대의 윤관이 변방의 여진족을 평정하여 나라를 동방의 문명국으로 지키는 데 기여했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의 공적은 993년(성종 12) 거란의 침입 당시 적장 소손녕과의 담판을 통해 여진족을 몰아내고 강동 6주를 확보한 서희의 공에 못지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철문관”과 “선충령”은 각각 함경도 국경 지역의 요충지로, 윤관이 여진 정벌 이후 1108년(예종 3)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축조한 9성 중 하나인 공협진에 위치한 지명이다. 그러나 이 9성은 1109년 7월까지 1년여 동안 여진의 끊임 없는 공세에 시달리다가 결국 조정의 결정으로 반환되고 만다.⁵⁷⁾

『고려사』 『윤관 열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개척한 땅이 너무 넓고 9성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고 계곡과 골짜기가 험하고 깊어 적들이 북병을 두어 성과 성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군사를 징발하자 온 나라가 소란해졌고 기근과 역병으로 원망이 일어나 결국 9성을 반환했다.”⁵⁸⁾ 그러나 김려는 윤관의 여진 정벌과 9성 축조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도 번호들 두려워 떠다”(卽今藩胡猶惶慄)라는 구절을 통해 윤관의 영웅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그의 행적으로 인해 북방에 평화가 도래했다는 점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북방 방어와 관련된 시들에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2) 284수의 ‘김중서’(1383~1453), (3) 230수의 ‘신숙주’(1417

57) 박종기, 『고려사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2015, 213~214면.

58) “初朝議以得瓶項, 塞其徑, 狄患永絕, 及其攻取, 則水陸道路, 無往不通, 與前所聞絕異. 女眞既失窟穴, 誓欲報復, 乃引還地, 群酋連歲來爭, 詭謀兵械, 無所不至, 以城險固, 不猝拔, 然當戰守, 我兵喪失者亦多. 且拓地大廣, 九城相去遼遠, 谿洞荒深, 賊屢設伏, 抄掠往來者. 國家調兵多端, 中外騷擾, 加以飢饉疾疫, 怨咨遂興, 女眞亦厭苦. 至是, 王集群臣議之, 竟以九城還女眞, 輸戰具·資糧于內地, 撤其城.” (『고려사』 卷96, 『윤관열전』, 국사편찬위원회 DB)

~1475) 등도 모두 변방을 평정한 영웅으로 길이 찬사받아야 할 인물로 노래된다.⁵⁹⁾⁶⁰⁾ 284수에서 김중서는 “깊은 산에서 나라를 지키는 호랑이”(虎在深山藜藿衛)⁶¹⁾며, “그 공적은 만세에 영원할 것”(金節齊功巨萬世)이라 찬사되고, 230수에서 신숙주는 “우뚝한 바위 위에 새긴 그 이름 석 자”(摩天石上三大字)가 “만년의 비바람에도 깎이지 않으리”(萬秋風雨不能磨)라 찬사된다. 김중서는 “여덟 길 세모창에 황금 투구 쓰고서/ 관북 스물네 고을을 진동시켰지”(丈八蛇矛純金盔, 震動關北廿四州)라고 하여 그 영웅적 활약이 관북 일대를 울렸음을 드러낸다. 신숙주의 경우에는 그가 이끌던 부대원들의 모습을 “활을 차고 화살 맨 삼십만 병사/ 달빛에 갑옷이 생선 비늘처럼 반짝였지”(腰弓臂箭三十萬, 甲光向月金鱗開)라고 노래된다. 또한 김중서의 변방 평정으로 “흑룡강가에 봉화 꺼지고/ 청해에 오랑캐 귀신의 울음소리 들리고”(黑龍江頭狼火死, 胡鬼啾啾青海頭), 신숙주의 야인 정벌⁶²⁾로 “오랑캐 섬멸되어 강이 피로 물들었고/ 여진족이 밤에 발가되 너머로 달 아난다.”(胡兒盡洗血成波, 女眞夜遁過勃哥)고 기술된다.

이렇듯 해당 시들은 역사적 인물들에게 이상화된 이미지를 한껏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단지 전형적인 화이관(華夷觀), 즉 열등한 이민족 대 우월한 조선인이라는 단순한 등식을 만족시키고 싶었던 것일까? 김려는 왜 이렇게 써야만 했을까?

우선 이 시들에서 주목할 점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변방 역사의 기

59) 284수: “問汝何所思, 所思北海湄. 虎在深山藜藿衛, 金節齊功巨萬世. 丈八蛇矛純金盔, 震動關北廿四州. 黑龍江頭狼火死, 胡鬼啾啾青海頭. 貌寢膽大似裘毳, 肝烈脾貞賽孝孺. 勳偉尊攘胸虎韜, 義辦君臣身鴻羽. *金相宗瑞開拓六鎮, 世祖靖難時殉節.”

60) 230수: “問汝何所思, 所思北海湄. 中廟名臣申泛翁, 北人猶記征胡功. 黑鱗河邊洗兵迴, 黃柘坂頭秣馬來. 腰弓臂箭三十萬, 甲光向月金鱗開. 胡兒盡洗血成波, 女眞夜遁過勃哥. 摩天石上三大字, 萬秋風雨不能磨. *中文忠 叔舟字泛翁, 曾爲征胡元帥. 黃柘坂地名.”

61) 『한서』(漢書) 『개관요전』(蓋寬饒傳)에 “산에 맹수가 있으면 명아주나 콩잎도 따러 나오지 못하고, 나라에 충신이 있으면 간사한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山有猛獸, 藜藿爲之不采, 國有忠臣, 奸邪爲之不起)에서 변용한 것이다.

62) 신숙주는 1459년(세조 5) 1월 29일 강원도, 함길도의 도체찰사로 임명되어 야인 정벌을 위해 출정해 그 해 3월 회령에서 울랑합(兀良哈)·알타리(幹朶里)와 울적합(兀狄哈)의 화해를 추진한 일을 조정에 보고한 일이 있다. 이듬해(세조 6) 3월 22일 함경도 도절제사 양정(楊汀)이 부령에서 노략질을 한 야인들에 관한 보고를 올리자, 세조는 북정을 결심하고 신숙주를 도체찰사로 삼는다. 신숙주는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9월 4일에 거사한 사실을 보고하고, 9월 11일과 9월 22일에 정벌한 일을 보고하고, 9월 24일에 변경 군진의 제도를 유지하고 영북에 진을 설치할 것을 요청한 뒤 10월에 돌아온다. 『조선왕조실록』 고종전합DB 참조.

역이 타자(이민족을 포함한 민중)⁶³⁾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윤관에 대해 오랑캐(번호)들은 “지금도” “두려워 떨”고, 김종서 덕분에 “청해에 오랑캐 귀신의 울음소리”⁶⁴⁾가 들리고, 복인들은 “아직도” 신숙주의 “공로를 기억한다.”

여기서 지칭되는 “복인”은 부령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여진족, 혼혈자, 그리고 월경해 온 이민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부령 지역에서 국가를 초월한 거대한 민간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사유악부』 133수는 여진족과 조선족의 혼혈자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방증한다. 그 자주(自註)에는 “북쪽의 승려들은 모두 처자식을 거느리는데, 이를 재가승이라고 한다. 내가 세들어 살던 집주인 서용이 승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다.”⁶⁵⁾고 적혀 있다. ‘재가승’은 함경북도 북부 지역인 부령군, 회령군, 종성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의 산간 지역에 거주하던 집단이다. 이 부락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진 후예와 외부 유입자가 합류해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한 설명으로 여겨진다.⁶⁶⁾

역사적 영웅의 행적이 이민족의 기억에 의해 구성되는 듯한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는 (5) 242수이다.

<242수>

- | | |
|-------------|---------------------|
| ① 問汝何所思, | 무얼 생각하나? |
| ② 所思北海湄. | 저 북쪽 바닷가. |
| ③ 前身尉遲 申忠壯, | 전생에 위지(尉遲)였던 신립 장군은 |

63)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2장에서 말한 우만각시, 즉 ‘이민족-타자’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김려의 타자는 ‘피지배층인 조선인 타자’, ‘여진족 타자’, ‘월경인 타자’, ‘혼혈인 타자’ 등등 다양하게 구성된다고 파악된다. 이들이 바로 당시 부령에 잡거했던 거대한 ‘변방의 민중층’을 형성하고 있다.

64) 그러나 여기에는 두보의 시도 중첩되어 있다. “君不見青海頭, 古來白骨無人收. 新鬼煩冤舊鬼哭, 天陰雨濕聲啾啾.” 『兵車行』, 『杜少陵詩集』 권2.

65) “南石寺名. 北僧皆育妻養子, 名曰在家僧. 主人徐翁娶僧女爲子婦.”

66) 재가승은 조선왕조 시대에 머리를 깎고 승려의 형식을 갖춘 천민들이었으며, 수행을 쌓은 적은 없고 약간의 불경만을 외울 수 있었다. 사람이 죽으면 불교식으로 화장하고 제사를 지내는 등 불교적 의례를 따랐지만,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이루고 농사를 지었으며, 불공이나 상제 때를 제외하면 육식을 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었다. 절에서 생활하지 않고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재가승’(在家僧)이라 불렸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함경남/북도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1, 44~45; 78면.

- | | |
|------------|---------------------------|
| ④ 猛氣雄風古良將. | 용맹스런 기상이 옛 장수와 같았네. |
| ⑤ 團花錦袍猩血濃. | 적과 싸워 전포는 피투성인데 |
| ⑥ 點鋼鐵槍驚靑鎗. | 기름 바른 강철창을 비껴 잡고서 |
| ⑦ 身騎紫燕穿重圍. | 천리마 달리며 겹겹 포위 뚫으니 |
| ⑧ 宛是常山 趙子龍 | 이 아니 상산의 조자룡인가. |
| ⑨ 胡兒不啼口半啞. | <u>오랑캐들 이를 보고 아연실색해</u> |
| ⑩ 至今說着賊汗瀉. | <u>그때의 천리마 지금도 말하네.</u> |
| ⑪ 穩城令公出陣時. | <u>이후로 온성 사또 출진할 때면</u> |
| ⑫ 女眞酋王齊下馬. | <u>여진 추장들 하마하며 경배했다지.</u> |

(申公位爲穩城都護, 藩胡潛伏, 至今稱之)

신립이 온성 도호부사였을 때 여진족들이 두려워하며 복종했는데, 지금까지도 당시 일을 말한다.

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당개의 난⁶⁷⁾이 일어날 당시 온성 부사였던 신립 장군(1546~1592)은 당태종 휘하에서 큰 공을 세웠던 장군 위지공에 비유된다. 그의 활약상은 “적과 싸워 전포는 피투성인데/ 기름 바른 강철창을 비껴 잡고서/ 천리마 달리며 겹겹 포위 뚫은” 용맹무쌍한 모습으로 형상화되며 조자룡에 비견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때의 천리마 지금도 말하네” 이하의 구절로, 오랑캐들이 아직도 당시 신립의 말 탄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후 온성 사또가 출진할 때면 “여전히 말에서 내려 경배”하는 의식을 오랑캐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각주에서는 “지금까지도 당시 일을 말한다”고 거듭 강조해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김려가 오랑캐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알 수 있었는가는 이

67) 선조는 즉위 초부터 두만강 유역 진 부근에 변호가 많았기 때문에 청렴한 덕이 있는 사람을 두만강 유역 진의 수령으로 임명하여 일정한 통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변장으로 파견된 자는 대부분 탐오하고 포악하여 향화 여진인을 침탈했기 때문에 변호들의 조선에 대한 불만이 날로 커져갔고, 이들의 불만은 결국 이당개의 난과 같은 대규모 침입의 주요 발미를 제공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김세용, 『선조조 니당개란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50면. 1월 28일 이당개 등이 경원진을 침입하였을 때 경원부사 김수가 맞서 싸웠으나 패배했다. 경원부와 안원보의 성이 함락되고 난 뒤, 온성부사 신립이 군사를 거느리고 후원하여 이들을 격퇴시킨다. 난이 일어나면서 경원, 중성, 회령 등 진의 변호들이 모두 배반하였으나 온성의 변호만은 배반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신립의 무용에 승복했기 때문이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수정)16 2월 1일자 기사.

지역에 오랫동안 세거해온 조선민들뿐 아니라 여/조의 혼혈자나 6진 개척 이후 두만강 유역에 살던 성저야인들 중 귀화한 자들⁶⁸⁾, 청시를 오고가는 각국의 상인들⁶⁹⁾이나 월경해 온 이민족 등 다양한 종족의 혼거와 교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록이 이민족의 실제 증언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변방의 승리를 기억하는 부령 지역 조선민의 시각에서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지배층의 역사적 관점이 내포된 것인지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술방식은 민중 구술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그것은 공식 기록과 다른 현지민들의 경험과 기억을 반영하는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중심의 단일화된 역사 서술을 넘어 그들의 복합적이고 혼종적인 역사 인식과 역사적 인물 및 사건에 대한 감정을 보여준다. 신립 장군이 말 탄 모습에 대한 기억과 경배 의식이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예에서 부령의 민중이 변방 승리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면화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선충령의 비석”, “흑룡강가의 봉화 꺼짐”, “청해의 오랑캐 울음소리”, “칼을 씻고 돌아온 흑심하”, “말을 먹인 황자과”, “운성 사또에 대한 여

68) “세종대에 설치한 육진은 대대로 두만강 유역에 거주해왔던 여진인들 입장에서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세종은 여진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노략질을 막기 위해 그들을 진의 성 아래에 거주하게 하여 조선의 울타리로 삼는 동시에 그들이 요구하는 생필품을 내어주는 등 최우책을 실시한다. 성저야인 중심의 여진 사회는 16세기 이후 농경의 발달로 정착 마을이 광범위하게 늘어나면서 중심부락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처럼 진을 중심으로 평야지대에 널리 퍼져 살면서 농경생활을 하던 여진족들을 변호라고 하였다. 변호들은 대부분 성 밑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변민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가졌으며 수령이나 변장의 세력권에 있었으므로 항상 조선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야 했고, 변관의 지시에 복종하기 마련이었다.” 김세용(2016), 앞의 논문, 20면; 28면; 42면.

69) 『사유악부』에서는 종종 청나라, 만주 지역 상인들과의 거래가 서술된다. 예컨대 15수에서는 “경원 청시점의 발가퇴 사람”이 언급되고 있으며, 24수에서 하인 위가 종성 가서 사온 오랑캐산 땅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주에서는 “해마다 청나라 사람들은 회령에서 교역을 하는데, 돌아가는 길에 경성에 묵었다가 간다”고 서술된다. 40수에서는 박경실이라는 자가 선성(鄆城: 두만강 동쪽으로 5리 떨어진 곳) 지역의 상인으로부터 사온 흑심하 돌벼루가 59수에서는 연희의 이종 언니 남편이 영고탑에 장사를 다녔다는 언급이, 76수에서 청사에서 호마(胡馬) 사서 고관에게 바쳐 자기 죄를 숨기려 한 폐약무도한 장사현에 관한 언급이, 79수에서는 청시의 명주를 구했다는 서술이, 118수에서는 “지난해 백상보 사는 정홍신이 변경의 말 장사에게서 구입한 것”이라는 서술이, 159수에서는 만주 상인에게서 사온 새매 한 마리 이야기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북방 역사와 관련되어 전해지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리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진족 추장들의 경배의식” 등은 구체적인 지명들과 연결된 ‘유적’, ‘전설’, ‘일화’, ‘풍습’으로서 역사적 사건의 흔적을 증거하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세 편의 시는 이시애의 난(세조 13, 5월)⁷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보였으나, 이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오랑캐들과 싸우다 전사한 인물들-남이, 구성군 이준, 조규-을 다루고 있다.

(4)-a 253수⁷¹⁾에서는 3~4구에 남이(南怡, 1441~1468) 장군과 “동포대”(함경도 홍원 동포리에 있는 대)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동포대에서 “갑병을 씻었다”(洗兵)는 표현은, 그가 이시애의 난을 종식시켰음을 의미한다고 이해된다.⁷²⁾ 일찍이 남이 장군은 “백두산 바위는 칼을 갈아 다 없애고 / 두만강 파도는 말을 먹여 다하였네.”⁷³⁾라는 시를 지어 호방한 무인의 풍모를 자랑했지만, 백두산과 두만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반면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7구에서 알 수 있듯이 남이는 스무 살의 어린 나이에 역모죄에 걸려 처형을 당한다.⁷⁴⁾ 김려는 “이제 말은 누가 물 먹이고 칼은 누가 가나.”라고 한탄하며 남이의 죽음을 애도한다. 또 한무제 시절 흉노 토벌에서 11만여 급을 참수했던 명장 광거병 같은 훌륭한 인재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는 식의 안타까움도 표한다. 11~12구에서는 “장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지”(自壞長城) “그대 탓이 아니거늘”이라고 하여 남이의 죽음이 부당한 것

70) 이시애는 세조 때 경흥진 병마절제사(慶興鎭兵馬節制使)·회령 부사(會寧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세조가 점차 북방민들의 등용을 억제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해 나가자 위기감을 느낀 이시애는 1467년(세조13)에 절도사 강효문(康孝文) 등을 살해하고 단천(端川)·북청(北靑)·홍원(洪原)·함흥(咸興) 등을 점거하였다. 조정에서 관군 3만 명을 파견하여 항복을 종용하자 불복하고 북방민들의 등용을 거듭 주장하였는데, 민심의 이반과 부하들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복주되었다.

71) 253수: “問汝何所思, 所思北海瀕. 東浦瀾滯春盈渚, 南怡將軍洗兵處. 白頭山石空嵯峨, 豆滿江水猶瀾洑. 丈夫二十身先死, 馬誰來飲刀誰磨. 威斃家世年又少, 前身爾應霍嫫姚. 長城自壞非爾力, 空使河魁沉光耀. *東浦壘巖, 有南將軍犒軍處. 將軍成廟外孫.”

72) 두보(杜甫)의 『세병행』(洗兵行)에 “安得壯士挽天河, 淨洗甲兵長不用”에서 끌어온 말이다. 『杜少陵集』 卷6.

73) “白頭山石磨刀盡, 豆滿江波飲馬無. 男兒二十未平國, 後世誰稱大丈夫” 李肯翊, 『南怡之獄』, 『燃藜室記述』 卷6, 고전종합DB 참조.

74) 1468년 10월 24일 병조참지였던 유자광(柳子光)은 남이가 자신에게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내게 하려는 징조”에 대해서 말했다고 왕에게 전하며 역모를 고변했다. 남이는 즉시 체포되었다. 처음에는 모반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혹독한 국문을 받으면서 결국 시인했고 4일 뒤인 1468년 10월 27일 강순, 조경치, 변영수, 변자의, 문효량, 고복로, 오치권, 박자하 등과 함께 저자에서 거열형에 처해졌다.

임을 은연중에 토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려는 자주(自註)에서 남이 장군이 군사들에게 밥을 먹였다는 일화가 ‘동포대’에 서려 있음을 강조하여 기록한다. 이렇듯 ‘지명’과 관련된 영웅의 사적을 함께 언급하는 서술은 『사유악부』 곳곳에서 반복되며, 역사와 전설이 지명과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작자의 인식-즉, 역사에서 전설이 파생되고, 지명을 통해 역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일관된 인식-을 보여준다. 하나의 장소가 역사적 기억과 전설의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자의 서술 방식은 (4)-b 254수에서도 확인된다. 이 시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본문에 직접 인용하기로 한다.

<254수>

- | | |
|-----------|-------------------------------|
| ①問汝何所思, | 무얼 생각하나? |
| ②所思北海湄. | 저 북쪽 바닷가. |
| ③龜城公子邦國傑, | 구성군은 나라의 인걸 |
| ④萬甲藏胸奮志烈. | 만 명의 갑병 가슴에 품고 충렬을 떨쳤네. |
| ⑤義氣英聲信陵君, | 의기로운 명성은 신릉군이요 |
| ⑥神輜秘畧衛將軍. | 신비한 전략은 위 장군이지. |
| ⑦况復虬髯似太宗, | 꼬불꼬불한 수염은 당 태종과 비슷한데 |
| ⑧二十登台古未聞. | 20대에 재상된 건 옛날에도 없던 일. |
| ⑨功成不賞先隕軀, | 공을 이루고도 상 받지 못하고 일찍 죽으니 |
| ⑩可憐玉玦青珊瑚. | 가련도 해라 왕의 후손이여. |
| ⑪至今北人賽神日, | <u>지금 북쪽 사람들 새신(賽神)을 할 때면</u> |
| ⑫金支翠旒光有無. | <u>금지과 푸른 기 번쩍 번쩍 빛나네.</u> |

(龜城君 浚與南怡討平李施愛, 賜死. 北人賽神, 必祭龜城. 事見『寧山神輜』.)

구성군 이준은 남이 장군과 함께 이시애를 토벌했으나 사사되었다. 북쪽 사람들은 새신을 할 때 반드시 구성군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에 대해서는 『영산신사』에 썼다.

구성군(龜城君) 이준(李浚, 1441~1479년) 역시 어린 나이에 도총관으로서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인물이다. 그는 범중엄처럼 “만 명의 갑병을 가슴

속에 품고”⁷⁵⁾ 충절을 떨친 인물로 칭송되고, 의기로는 전국시대 사공자 중 하나인 신릉군에, 전략으로는 중국 한무제 때의 명장 위 장군에, 모습으로는 당태종에 비견⁷⁶⁾된다. 그러나 이준 또한 남이와 마찬가지로 “공을 이뤘지만 상을 받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功成不賞先隕軀).⁷⁷⁾ 김려는 “가련도 해라, 왕의 후손이어.”⁷⁸⁾라고 하여 그의 때 이른 죽음을 안타까워한다.

그런데 이준의 공적에 대한 변방의 기억은 지방 무속에 여전히 그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지금 북쪽 사람들 새신(賽神)⁷⁹⁾을 할 때면/ 금지와 푸른 기 번쩍 번쩍 빛나네”⁸⁰⁾라고 하여 부령 민간 제의에서 이준을 기리고 있는 듯 마무리하고 있으며 자주(自註)에서도 “북쪽 사람들이 새신을 할 때 반드시 구성군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부연해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영산’은 부령의 군명(郡名)이다. 바로 이 지역에서 ‘영산신’인 이준의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속에서는 훌륭한 무인이나 장군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신으로 숭배하는 경우가 많다. 고려 충신이었으나 이성계 일파에 의해 제거되어 무속신으로 부활한 최영, 충신이었으나 김자점에 의해 옥사

75) 朱熹, 『宋名臣言行錄前集』 卷7에 『名臣傳』의 “範仲淹領延州, 夏人聞之, 相戒曰: ‘毋以延州爲意. 今小範老子, 腹中自有數萬甲兵, 不比大範老子可欺也.’ 戎人呼知州爲老子, 大範謂雍.”을 인용하여 “公領延安, 閱兵選將, 日夕訓練, 又請戒諸路, 養兵蓄銳, 毋得輕動, 夏人聞之, 相戒曰: ‘無以延州爲意. 今小範老子, 腹中自有數萬甲兵, 不比大範老子可欺也.’ 戎人呼知州爲老子, 大範謂雍也.” 라고 하였다.

76) 두보의 시 『팔애시』(八哀詩)에 “虬髯似太宗”, 『송중표질왕에평사사남해』(送重表姪王砮評事使南海)에 당 태종을 “虬髯十八九”라고 묘사한 구절이 있다. 『杜少陵詩集』 권16; 권23.

77) 구성군 이준은 세종의 4남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瑋)의 아들이다. 성종 1년(1470)에 나이 어린 성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정인지(鄭麟趾) 등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박탈당하고 경상도 영해(寧海)로 귀양을 가서 10년 만에 죽었다. 숙종 때에 참관 이선(李選)이 상소해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훈등과 작위가 회복된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1년 1월 2일; 14일, 10년 1월 28일자; 정조 13년 2월 16일자 참조.

78) 두보의 『애왕손』(哀王孫)에 “腰下寶玦青珊瑚, 可憐王孫泣路隅”라고 하였다.

79) 박혜숙은 해당 시에 나오는 “새신”(賽神)을 굿으로 번역했으나 이것이 굿의 형태를 띠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새신’의 용례는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나온다. 여기에 “이 바위를 새신영공(賽神令公)이라고 부르는데, 뱃사공들이 여기를 지날 때는 언제나 향을 피우고 기도한다 하여 새신(賽神)이라 한다”는 기록이 나온다. ‘새신’은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도 지역에 한정된 기록이긴 하지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함경남/북도편)에 “함북에는 무녀가 없고, 북술이”라는 독경장이 대부분”이라는 함남 무당의 증언 및 『우만각시 사당을 지나며』에서 “바다의 무당(海現) 단향 태워 정결히 하고 / 변방의 상인 제사밥 공손히 올리네.”라는 구절을 종합해 봤을 때, 독경을 하는 의식 자체를 ‘새신’으로 여겨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80) 두보의 『미피행』(美皮行)에 “湘妃漢女出歌舞, 金支翠旗光有無”라고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3.

한 뒤 서해 연평도 지역의 해신이 된 임경업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남이 장군 또한 무속에서 신으로 모셔진다. 여기에 우리는 한 인물, 북방 무속에 이준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는 ‘이준’이란 인재의 죽음과 그 안타까움을 작자가 토로하는 동시에, 영웅 행적의 흔적을 함복 고유의 민간 곳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4)-c 259수⁸¹⁾에서는 조 장군(曹糾(糾), 조규)이 묻힌 강가 무덤을 시적 배경으로 삼는다. 동관진(潼關鎭)은 함경도 6진의 하나인 종성에 위치한 진⁸²⁾이다. 박혜숙은 이 시에서 조장군의 행적에 착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조규는 당시 단천 사람이자 부장이었던 최윤선이 적과 내통하는 바람에 차운혁, 정휴명, 박장성과 함께 모두 생포되어 단천 옥에 갇힌 뒤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⁸³⁾ 때문에 동관진에 무덤이 있다는 기록상의 오류는 김려가 관북 지방의 구전을 바탕으로 시를 썼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으며 이 외에도 그런 시가 몇 편 더 있다고 하였다.⁸⁴⁾ 본고 역시 구전을 토대로 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생각된다.

흥미롭게도 『여지도서』 함경도 부령 조에 ‘조규’에 관한 행적이 나온다. 여기서 조규는 “적과 마주쳐 순절했으며, 첩지에 추증되었다. 정문은 고을의 남문 밖에 있는데, 시기를 적어 놓은 것이 없고 또한 후손도 없어서 지금은 살펴볼 수 없다.”⁸⁵⁾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김려가 자주(自註)에서 “정문이 세워졌다”고 한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조규의 행적이 불분명한 이유는 당시 단천에서 벌어진 사건을 부령 지역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조규의 가족들도 없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와 공식 기록 사이에 간극과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에서는 조규의 무덤이 “동관진” 근처에 있다고 전하며, 그곳에서 오랑캐들과 장렬히 싸우다 죽

81) “問汝何所思，所思北海濱。苦戰身死曹將軍，可憐江頭寄孤墳。潼關鎭上日色驚，賊兵三匝如螻蛄。將軍馳馬穿重圍，撥地回旋燕子起。手中單刀光葳蕤，將軍罵賊如狗兒。志決身殲可奈何，空使英雄涕漣漣。忠臣曹糾，李施愛亂，殉節旋關。余別有『判官曹公墓碣銘』。” 박혜숙 번역본과 『답정유고』 고전종합db에는 “趙糾”로 되어있으나, 원문(한국문집총간 289, 479면)에 “曹糾”로 표기되어 있다.

82) “南距鍾城十八里，北距永建二十里，穩城一息十五里” 『국역제승방략』, 1999, 58~59면.

83) 『조선왕조실록』 세조 13년 8월 8일자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84) 박혜숙(2022), 앞의 책, 524면.

85) “忠臣曹糾，遇賊死節，追贈僉知。旌門在府南門外而既無年月可記，亦無後孫存在，今不可攷。” 김우철 역주(2009), 앞의 책, 192~193면; 원문은 138면.

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던 것 같다.⁸⁶⁾ 이처럼 김려가 오랑캐들과 사투를 벌였던 영웅들의 불운한 죽음을 그럴 때, 공식 역사 기록보다는 변방 민중들의 기억과 믿음, 상상에 의존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6) 260수⁸⁷⁾에 그려진 원균(1540~1597)의 행적은 그와 관련된 지명을 통해 확인된다. 함경도 조산만호·부령부사·종성도호부사의 관직을 역임한 원균은 북방에서 “오랑캐들이 그 이름을 들으면 혼비백산”할 정도로 명성을 떨친 인물로 기술된다. 특히 “서평 골짜기”이라는 장소는 그의 영웅적 행적을 증거하는데, 이곳에서 원균이 호랑이를 쏘아 호랑이 피가 “붉게 숲을 물들”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는 임진왜란 때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해 전사하여 “남해에서 명성을 잃었고”, 이순신에 “미치지 못한”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부령에 머물던 당시의 영웅적 치적은 북방 민중의 기억 속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것 같고, 그에 대한 평가는 그것대로 김려가 인정해 주고 있다.

(7) 91수⁸⁸⁾에서는 동북 오랑캐 변호의 침입으로 부령도호부사 이간(李侃, 1535~1612)이 사투 끝에 죽은 이야기를 노래한다.⁸⁹⁾ 당시 동북 변호는 ‘노토’(老土) 등의 무리였으며, 교전지는 부령의 차동이다. 다만 박혜숙은 이간이 실제로 이곳에서 죽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⁹⁰⁾ 시에서는 부령 서쪽에 오래전부터 ‘이도호의 묘’가 있었다고 언급하는데, “傳”이란 어휘를 통해 김

86) 김려는 남이 장군 관련 시에서 세주에서 태종의 외증손인 남이가 “성종의 외손”이라고 하였으며, 성종 때 사망한 신숙주를 “중종 명신”이라 하였는데, 이 역시 구전이나 야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87) 260수: “問汝何所思, 所思北海湄. 凜凜威風元統制, 藩酋聞之魂先殘. 白晳方面驍且雄, 有力能挽三石弓. 西平谷裏射虎時, 血雨吹亞林木紅. 天生麤猛少智數, 可憐名喪南海濤. 元公元公錯承當, 爾才那及李忠武. *元統制均曾爲府都護, 藩胡震懼. 余別有記「元統制事」. 西平地名. 李忠武舜臣.”

88) 91수: “問汝何所思, 所思北海湄. 偵探竄上四尺墓, 古來傳理李都護. 憶昔藩胡亂北州, 封豕長虺扼咽喉. 千軍盡死賊愈熾, 都護隻手挾一矛. 氣竭力殲可奈何, 忠肝義膽猶不磨. 天陰雨濕鬼啾啾, 谷中白骨空嵯峨. *嶺在府西. 宣廟庚子, 藩胡入寇, 都護李侃死之. 余別有「李都護戰亡本末」.”

89) 『조선왕조실록』 선조 33년 4월 1일과 8일자.

90) 박혜숙(2022), 앞의 책, 188면 각주 2번에서 “이간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의 몰년은 광해군 4년(1612)이고 경상좌병사로 병영에서 사망했다”는 역사학계의 연구를 거론하였다. 이 역시 박혜숙은 현지 전승에 따른 결과 초래된 착오로 추정하였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4년 임자(1612, 만력)에 이간을 ‘경상좌병사로 임명된 기록이 있다. 역사학계 연구는 유영옥, 『선조조 공신 海槎 李侃의 抗賊 활동』, 『역사와 경계』 110, 부산경남사학회, 2019, 83~84면.

려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서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이간은 “몸에 10여 군데 부상을 입었고, 편장·비장 등 5~6인이 전사” 하는 치열한 전투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일화는 과장되고 민간인들 사이에서 ‘무덤’의 존재가 믿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⁹¹⁾

이간의 정보는 178수 자주(自註)에도 등장한다. 여기에는 황윤중(黃允中)의 선조인 황수(黃垂)가 “정문부를 쫓아 공을 세웠으며, 뒤에 이간과 함께 전사했다”(壬辰從鄭文學有功, 後與李侃戰亡)고 적혀있다. 한편, 황수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원배(李元培, 1745~1802)의 『훈련원주부황공묘갈명 병서』(訓鍊院主簿黃公墓碣銘 并序)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묘갈명에 따르면 황수는 “경자년 봄에 변호와 부령 개탕동에서 싸우다 불행히도 죽었다”(庚子春, 又與蕃胡戰于富寧 啓湯洞, 不幸陣沒.)⁹²⁾고 하며, 그의 7세손 황우석(黃禹錫)에 의해 전해진다. 경자년이 1600년임을 고려하면, 이는 『사유악부』 91수에서 이간이 전사했다고 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황우석 집안은 황수의 고조가 1488년(홍치 원년)에 부령으로 유배된 뒤 그곳을 본적으로 삼은 뒤부터 세거해 왔다. 『사유악부』 206수에서 거론되는 부령의 씨족들 사이에 ‘황씨’가 포함되어 있다.⁹³⁾ 김려는 유배 생활 중 황씨 후손들이 믿었던 선조들의 역사를 자주 접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가운데 이간과 황수가 같은 날 전사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음 가능성이 크다.

(8) 285수⁹⁴⁾의 시적 대상은 1717년(숙종 43)에서 1719년(숙종 45)까지 부령도호부사에 부임했던 정도원(鄭道元, 1681~1734)이다. 3, 4구에서는 “검은 얼굴 고리눈”(黑面環眼)과 북인들도 두려워했던 “늠름한 풍채”(凜凜風采)를 통해 무인으로서의 풍모를 드러낸다. 5, 6구에서는 “백 근의 쇠뇌도 가뿐히 당기는”(天生神射控百斤) 완력을 언급하며, “한나라 이광”(隴西飛將軍)에 비견된다. 7, 8구에서는 그의 뛰어난 활솜씨가 묘사된다. 특히 주목

91) 이 같은 견해는 유영옥(2019), 위의 논문, 106~107면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92) 李元培, 『訓鍊院主簿黃公墓碣銘 并序』, 『龜巖集』, 한국문집총간 101, 209면.

93) “寧城氏族誰最貴, 黃朴重輿衰替旣”

94) 285수: “問汝何所思, 所思北海濶. 黑面環眼鄭都護, 凜凜風采北人懼. 天生神射控百斤, 前身隴西飛將軍. 過鷹驚鷺無全目, 百中爭能迺出羣. 獐項原頭曉獵雉, 雙翼聯翮貫一失. 都護都護眞將種, 肯數颯踏天驕子. *都護名道元. 余別有「記鄭道元事」, 見「梨下記聞」.”

할 부분은 9, 10구이다. 정도원의 활숨씨에 대해 “노루목 들에서 새벽에 꿩 사냥 하면/ 나란히 나는 새를 한 화살로 꿰뚫”(獐項原頭曉獵雉, 雙翼聯翩貫一矢)었다고 한다. 이처럼 전설에 가까운 구체적인 정보는 현지 사람들의 구전이 아니면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북방에서 공적을 남긴 남성 영웅들에 관한 시들을 살펴본바, 이들의 영웅적 행적은 각종 ‘지명’(무덤, 비석, 골짜 등)과 연관된 전설이나 무속 의례, 풍습으로 증거되고, 김려는 이를 기억하고 있는 북방 현지민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 역사를 재구성하면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재현한 것이 확인된다.⁹⁵⁾ 그 내용은 때로 공식 역사, 사실 관계와 어긋난 모습을 띠며 다소 미화되고 이상화된 이미지를 부여하는 데 주력한다. 왜 이렇게 서술될 필요가 있었을까?

우선 김려는 지배 계급의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역사 기술 방식과는 다른 접근을 지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전설, 무속, 지명, 풍습 등 비공식적이고 주변적인 담화 속에서 역사의 흔적을 포착할 수 있다고 여긴 듯하다. 그렇다면 김려가 주목한 역사는 누구의 역사인가? 바로 민중이 기억하고 전승하는 역사이다. 주지하듯, 민중은 각종 전설, 신화, 무속, 민담을 창출하고, 그것을 공동체 내에서 유포하며, 세대를 통해 축적해나가는 기억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 부령 지역의 ‘민중’은 내부의 조선인들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그들은 외부의 이민족, 그리고 내·외부의 경계를 넘나드는 혼혈인, 귀화인, 월경인 등 다양한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북방 민중층의 감성과 반응이 담긴 구술적 기억을 시에 개입시키는 방식은 관 주도의 일방성이나 중심성이 아닌 상호성과 주변성을 더 고려한 역사 재현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역사적 지향은 김려가 야사 편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제후에서 자신의 역사관을 분명히 밝힌 사실을 환기시킨다. 신상필은 그의 논문에서 김려의 야사 인식과 그 의미를 조명해 바 있다. 논문의 요지를 살펴보면, 김려는 황괴하고 비속하며 불경한 성격의 패관소설과 야사를

95) 물론 시의 모든 구절이 전적으로 현지민들의 기억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가령 유영옥이 지적한 것처럼 “天陰雨濕鬼啾啾”는 두보의 시 『兵車行』의 구절을 거의 비슷하게 따왔다. 『사유악부』에서 두보시를 인용한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유교적 문인인 김려가 ‘두보시’와 ‘현지민들의 기억’을 어울리게 만들어 놓은 것이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철저히 구분하고 있었다. 그는 야사를 신빙성 있고 고아하며, 이치에 부합하는 기록으로 인식했으며, 개인의 비공식적 기록조차도 역사서의 체재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김려가 말하는 ‘역사서의 체재’란 『춘추』를 모범으로 한 것으로, ‘질(質), 실(實), 간(簡)’의 세 덕목을 갖출 것을 의미한다. 신상필은 이러한 덕목이 김려에게 중요했던 이유로, 역사 사실에 대한 문인의 주관적 개입—즉 당론에 따라 사실이 왜곡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⁹⁶⁾

이와 같은 맥락을 염두에 둘 때, 『사유악부』에서 김려가 이해한 역사적 ‘실(實)’의 성격이 문제로 떠오른다. ‘천하에 공론될 수 있고 당파적 편향을 벗어난 사실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오직 역사 서술자의 엄정하고 공정한 태도에서 비롯되는가? 그렇다면 그 ‘공정함’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가?’와 같은 문제 말이다. 비록 『사유악부』는 야사가 아니라 연작 악부시이며, 제후와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텍스트이지만, 김려는 그 질문에 대한 실천적 대답의 일면을 문학 작품의 형태로 제시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 현실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민의 세계와 서술 주체가 교감·교유함으로써 ‘사실’을 넘어 ‘진실’에 다가가는 방식이다. 이는 서술자의 ‘주관성’과 민중의 ‘상상력’이 결합하여, 다른 차원의 객관성을 확보해내는 대안적 역사 서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김려는 고정되고 종결된 ‘죽은 역사’가 아니라, 민중과 교감하고 반응하면서 ‘생동하는 실재의 역사’를 재편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유악부』를 집필하던 당시 김려가 지향했던 역사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유악부』가 독창적인 문학 작품이자, 동시에 지방의 미시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태도와 인식의 방향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앞서 언급한 시들에서만 민중의 ‘상상력’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까치와 관련된 시(67수, 173수), 꿈과 관련된 시(22수, 86수, 143수, 250수, 274수, 294수), 홍수에 관한 시(64수) 등이 있다.⁹⁷⁾ 이들 모두 정

96) 신상필, 『조선조 야사의 전개와 『한고관외사』의 위상』, 『대동한문학』 22, 대동한문학회, 2005, 219~224면.

97) 이외에도 『사유악부』에는 부령 노인들이 점괘 이야기(107수), 부령 석보역에서 역말이 죽은 것이 마조에게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이라는 역리들의 말(121수), 계속되는 천제지변이

밀한 해석이 요구되나, 이는 후일의 과제로 남기고 본고의 논점과 관련된 핵심만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67수에서 까치는 자신을 구해준 김려에게 불길한 운명을 예고하는 존재, 즉 다가올 사건에 대한 계시자로 등장한다. “어느 새벽 까악까악 슬프게 우짚더니/ 바로 그날 금오랑이 날 잡으러 왔네.”⁹⁸⁾에서 까치는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관념⁹⁹⁾은 173수에서도 발견된다. 김려는 진해 뜨락 감나무에 날아온 까치를 보고 좋은 소식을 기대하지만 이내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을 깨닫고 “부령 까치는 영물이더니 진해 까치는 바블세”¹⁰⁰⁾라며 한탄을 한다. 특이한 점은 김려가 자기 집안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까치 이야기를 접합시킨다는 사실이다. 9~12구에서 “나의 7대조 할머니 유배에서 풀려날 때/ 배 타고 따라온 까치 있었다던데 / 이 손자 못난데다 까치도 예와 달라/ 각각 울어대나 아무 소식 없네.”¹⁰¹⁾라고 하면서 자주(自註)에 “내 7대조 할머니 노부인께서 광해조 때 제주에 귀양 가셨는데, 인조반정으로 풀려날 때, 까치가 상스러운 징조를 보였다고 한다. 나는 『서작편』이란 글을 지은 적이 있다.”¹⁰²⁾고 기록한다. 7대조 할머니란 김제남(金梯男, 1562~1613)의 아내인 노씨(盧氏, 1557년 8월 28일~1637년 9월 14일)를 가리킨다. 김제남은 1613년(광해 5) 6월 1일 사화 때문에 사망하였고, 그의 부인 노씨는 1616년(광해 8)에 제주로 위리안치되었다가 계해년에 풀려나게 된다.¹⁰³⁾

인조반정 때 풀려난 노씨의 일을 까치가 미리 예고했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김려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가문 전설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김려의 ‘까치’ 시에는 민속의 신비적 관념을 개인의 역사 및 가문의 역사와 결합시키는 정신적 경향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관 사모 잔치 때문임을 비판한 것(122수), 채생의 점술(231수)에 관한 시들도 있다.

98) “清晨嗷嗷忽悲嘆，金吾使者是日到。”

99) 이러한 관념에는 우연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일상적인 것을 벗어난 것은 은폐된 힘들의 작용으로 간주되는 정신적 경향이 담겨있다. 이러한 정신적 경향에 대한 설명은 루시앙 레비브뤼 저, 김종우 역, 『원시인의 정신 세계』, 나남, 2011, 174~175면.

100) “北鵲有靈南鵲愚”

101) “曾聞盧母解謫時，神鵲乘舟渡海涯。孱孫不肖鵲非古，爾雖羣輩那得知。”

102) “余七代祖母盧夫人，光海朝謫毗羅，仁廟癸亥賜環，有鵲瑞。余有『瑞鵲篇』。”

103) 『延安金氏大同譜』3, 丙戌大同譜重修委員會, 2006, 2624면.

한편, 연희(86수), 선친의 친구 최병옥(崔秉玉)(143수), 벗 남성구(南星耆)(250수)에 관한 시들은 이성의 합리성을 초월한 꿈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사다리 딛고서 난간 오르며/ 연희야 부르며 술 찾았지만/ 연희는 못 들은 듯 대답이 없고 문득 깨어보니 창문에 새벽달이 걸렸네.”¹⁰⁴, “선생은 조용히 계시다 홀연 일어서시기에/ 모시고 가다 습지에 이르렀네./ 습지가 너무 험해 못 건넜거늘/ 문득 깨어보니 새벽달이 희미하게 지는”¹⁰⁵, “병풍 사이 편액 글자 가리키더니/ 붓을 들어 글자를 고쳐 눈물 흘렸지./ 깨어나니 서글피 그대는 보이지 않고/ 무정한 시냇물만 졸졸 흐르네.”¹⁰⁶ 이들 시에서 알 수 있듯, 김려의 불안한 심리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깨어나는 순간, 자기 앞에 놓인 영원한 자연물과 마주하며 그 불안의 본질-대상의 영원한 부재,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함, 꿈에 머물 수 없는 현실-을 막막하고 엄연하게 드러낸다. 꿈은 ‘불안’이라는 정서와 함께 현실의 벽과 소원의 갈망 사이를 영원히 맴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꿈속에서 경험한 영혼의 사건들이 도리어 작자의 현실과 내면의 진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요컨대, 모순된 두 세계가 똑같이 경험을 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 꿈속에서 경험한 사건이 실제보다 더 리얼한 심적 상황이나 진실을 반영한다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같은 시간에 육체적 인간은 진해에 잠들어 있고, 영혼의 인간은 부령의 연회를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상상력, 즉, 동일한 존재가 동시에 각기 다른 곳에 현존할 수 있다는 상상력¹⁰⁷은 전 논리적 정신 세계 그 자체를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별히 주목되는 시는 294수이다. 꿈속의 연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방님 묶이어서 떠나신 후로/ 우물가에 나란하던 앵두나무 살구나무/ 뿌리가 벌레 먹어 한날 죽었는데/ 올해 가을 홀연 잎이 돋어나/

104) “蓮姬不答若不聞，覺來曉月縈牕闥。”

105) “先生肅然忽起去，我隨而行當沮洳。沮洳險絕不得渡，覺來殘月向天曙。”

106) “指着屏間題額字，蘸筆塗沫淚溶溶。覺來惘恨君不見，溪水無情空跳躑。白門樓角宿鳩飛，新月彎弓雲鋪鍊。”

107) 레비브릴에 의하면, 이는 스킨라 학파에서 말하는 동일한 존재의 ‘다현존성’과 비슷한데, 이러한 정신세계는 원시인들의 공통된 경향이라 파악된다. 그 경험은 객관적인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무수히 많은 다른 현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전 논리적’ 정신 세계라 명명된다. 루시앙 레비브릴 저, 김종우 역, 앞의 책, 2011, 151~152면.

있과 가지가 무성해졌답니다./ 서방님도 나무처럼 어서 돌아와/ 이 생에서 다시 만나 즐겁게 살아요.”¹⁰⁸⁾ 이 시는 한때 김려와 연희의 추억이 깃든 나무가 그들의 역사와 시종을 같이 한다는 초월적이고 민간적인 관념¹⁰⁹⁾을 드러낸다. 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무처럼 어서 돌아오라”고 하며 불가능한 소망이 꿈속에서는 마치 가능한 일인 것처럼 말해진다.

한편, 250수에서 벗 남성구는 꿈속에서 편액의 글자를 고쳐준다. 그 편액에는 ‘불원성재(不願醒齋)’, 즉 ‘깨어있고 싶지 않다’라는 구절이 적혀 있다. 이 구절은 『사유악부』의 정서적 핵심을 예시적으로 드러낸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꿈속에서 지연시키고자 하는 개인의 심리와 소망이 이 편액 글자에 담겨있는 것이다.

홍수 시(64수)는 일상이 전복된 상태를 그린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홍수가 난 부령은 “큰 비가 열흘 내려 하늘이 뚫린 듯/ 평지가 넘실넘실 물바다가 되었고. / 계곡과 강이 넘쳐 바다와 통해서/ 허교 동쪽까지 마상선이 올라오고. / 나무는 꼭대기만 남고 논밭이 다 잠긴”¹¹⁰⁾ 낮선 풍경으로 변모한다. 일상의 전복은 “개구리 맹꽁이 부엌에서 출산하고 미꾸라지는 가마솥에서 놀았지”(電甕産廚鱸遊甕)에서 극적으로 표현된다. 이 구절은 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 지백(智伯)이 조양자(趙襄子)의 성을 몰로 공격했을 때, 부엌에 물이 차서 개구리가 알을 낳았으나 백성들은 배반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¹¹¹⁾는 고사를 변용한 것이다. 홍수는 백성들의 삶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자연 재해이지만 64수에는 그러한 위기감이 전혀 없다. 오히려 민의 세계가 자연의 힘에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실제 부령민들이 자주 발생하는 침수 상황에 익숙해지고 자연과

108) “阿郎被逮出城門，井上櫻桃與丹杏，一時並殞虫齧根。彈到今秋忽生葉，葉葉如掌枝枝疊。願郎如樹早回還，此生重逢共歡快。”

109) 순홍 지역 금성대군 신단 옆에 있는 은행나무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순홍이 죽으면 이 나무도 죽고, 이 나무가 살아오면 순홍도 살아온다.” 세조 3년(1457)에 순홍에 유배 온 금성대군과 순홍도호부사 이보흠이 단종 복위 거사를 도모하다 실패해서 죽임을 당한 정축지변 후에 세조가 순홍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고 땅을 나누어 풍기, 영주 등에 부속시켜 버렸을 때 이 나무도 죽었다. 그 후 숙종 9년(1683)에 순홍도호부가 다시 설치되었을 때 은행나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https://blog.naver.com/duky67/223079000518>>

110) “大雨十日天穿滲，平陸混淪成巨浸。溪漲江溢與海通，尙尙船到虛橋東。樹頭生耳禾黍泮”

111) 『國語』 『晉語』九에 “晉師圍而灌之，沉甕產蛙，民無叛意.” 는 기록이 보인다.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같은 홍수에 대해 21수에서는 “아직도 생생하네 지난 가을 물난리 / 개천물 불어나 물가 나무 다 잠겼지. / 물이끼 가득하고 쭉대가 무성한데 / 열흘을 학질 앓아 자리에 누웠네.”¹¹²⁾ 라며 끔찍했던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는 데 반해 64수에서는 전혀 다른 감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연희의 ‘쾌’한 감정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난간에 있던 연희는 김려와 함께 물 구경하며 “시원하다, 상쾌하다”(一快)고 외친다. 쌓여있던 울적한 심정이 홍수로 인해 깨끗이 씻겨 내려간 듯,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날, 개구리와 미꾸라지처럼 별것 아닌 존재들이 제날을 맞아 공연히 들뜨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연희도 즐거워한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감성이기도 하면서 억압받은 자의 해방된 감성이기도 하다. 연희는 홍수가 모든 것을 장악한 세계에서, 물에 잠겨버린 이전 세계를 걱정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 세계는 변화를 갈망하게 했던 세계였기 때문일 것이다. 기생이라는 자신의 현존 환경이 물에 잠겼으니 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곳이 홍수에 잠긴다 해도 연희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그날 연희는 “남자가 돼서 밭 갈고 고기 잡으며 부모님 슬하에서 웃으며 살아가는 세상”¹¹³⁾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잠시나마 충족된 꿈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유악부』에서 ‘불’과 ‘물’의 상징적 의미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은 자연재해가 되기도 하지만, 폭정으로 인한 재앙(290수),¹¹⁴⁾ 포획한 관리에 대한 징벌(74수),¹¹⁵⁾ 민중의 분노와 저항의 폭발(276, 277수),¹¹⁶⁾ 또는 그리움과 갈망의 정서(300수)를 상징한다. 반면, ‘물’은 현실적 재해(21수)나 사랑하는 이와를 방해하는 요소(103수)¹¹⁷⁾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렁이라는 공간 자체¹¹⁸⁾이자, 사랑하는 이와를 만남

112) “尙記前秋秋大雨，溪漲不辨溪邊樹。蒼苔沒屐蓬蒿長，經旬疥癩獨搯林。”

113) “每願他世環生日，富貴功名並不必。只作男子勤耕漁，百年長笑父母膝。”

114) “天翻地覆今春禍，玉石俱焚崑岡火。庭堅庭堅元祐人，回祿知愛遷客麼。”

115) “弘羊不烹天不雨，農夫田婦溝頭哭” 상홍양은 한무제 때 포획한 관리로 당시 마침 기물이 들어 상이 기우제를 지내게 하자, 복식(卜式)이 말하기를 “관청은 세금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데, 지금 상홍양은 관리를 시켜 시장에서 모리를 하고 있으니 홍양을 죽이면 하늘이 비를 내릴 것입니다.” 하였다. 司馬遷, 『史記』卷30『平準書』

116) 276수를 우연히 일어난 화재로 해석할 여지도 있겠지만, 277수와 연관해서 보면 불만에 찬 백성이 일부러 일으킨 화재였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겠다.

117) “苦雨長夏漲溪流，五日不覩蓮姬面。”

의 장소¹¹⁹)이자, 사랑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¹²⁰) 임금의 선정(74수)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기능한다. 요컨대 ‘불’은 타는 그리움으로 소멸해가는 존재인 ‘김려’이며, ‘김려’의 갈망이자, 폭정으로 삶의 기반을 잃어가는 ‘민’의 분노라면, ‘물’은 ‘민’과 ‘김려’를 구원해줄 근원적인 존재이자, ‘민’의 구원이자 사랑 그 자체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만각시’의 신격이 물의 신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본고의 논의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김려의 우만각시 꿈은 우연적 낭만이나 환상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상반되는 불과 물의 상징은 각각 불쾌(심리적 갈망)와 쾌(심리적 충족)의 정서를 유도하는바, 앞서 분석한 홍수 시 역시 이러한 상징적 연관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닌다. ‘쾌’하다는 감정을 야기하는 홍수는 신화의 상상력과 민중의 전복성에 젖줄을 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이제까지 3장에서 살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유악부』에 수록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다룬 시들은 지명·전설·일화·무속·풍습 등을 통해 증거되며, 변방 민중층의 시각과 구술에 의거해 서술되는 면모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는 작가가 변방의 역사를 민중의 기억에 접합시켜 구성하고자 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서술은 결코 민중의 일반적 구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두보 시와 민중의 구술을 만나게 한 것처럼, 사대부 문인인 김려가 우만각시를 조우한 것처럼, 『사유악부』는 시적 주체의 주관성이 민중의 심성과 만나 ‘변방’의 역사지리를 형성해 나간다. 『사유악부』는 이러한 역사적 지향 속에서 ‘우만각시’를 특별히 호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 김려는 왜 하필 120수 ‘우만각시’에 관해 썼을까? 본고는 우만각시가 잠들어 있는 부령성 밖 무덤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답해본다. 그곳은 국가와 민, 죽음과 삶, 이민족과 조선인, 역사와 민속, 꿈과 현실, 안전과 침입이라는 서로 다른 두 향을 매개하는 경계 공간이었다. 그러한 공간에서 김려는 자신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타자를 조우한다. 김려와 우만각시는 남/여,

118) 『사유악부』에는 ‘부령’ 도처에 물이 있다.

119) 137수에서 연희는 김려에게 가리촌 십 리 즈음에 있는 온탕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을 테니 거기서 만나자는 편지를 보내온다.

120) 156수에서 김려와 연희는 옥폭동 폭포수 밑에서 함께 목욕을 한다.

인간/신, 조선인/이민족, 산 자/죽은 자, 땅에 속한/하늘(땅 밑)에 속한, 불/물에 상응한다. 김려는 이렇듯 이질적인 존재와 꿈속에서 만났다고 그리고 있는 것이다.

‘부령’은 김려가 경험했던 유배의 현실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간절히 그리워한 꿈과 감정의 공간이었으며,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부령민들 및 자연, 사물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했다. 또한 재생과 풍요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우만각시’ 신이 머무는 물의 공간이자, 부패한 지방 정치와 경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회록(回祿, 불의 신)의 공간이기도 했다. 결국 부령은 김려라는 경험 주체가 만났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역사적 ‘실재’의 공간이었던 셈이었다. ‘우만각시’가 묻혀있는 무덤은 바로 그 부령의 공간적 성격을 압축적으로 상징한다.

‘우만각시’ 시 후반부에서 지상에 묻혀있던 우만각시는 ‘하늘의 선녀’로 부활한다. 『사유악부』를 통틀어 ‘선녀’로 명시되는 이는 ‘연희’뿐이다. ‘연희’는 12수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장백산 정기 맑고 맑은데/ 이천 년간 정수를 키워내었네/ 연희는 연희는 하늘의 선녀건만/ 어찌하여 궁벽한 변방에 묻혀 사는지.”¹²¹⁾ 연희는 “장백산 정기가 키워낸 정수”인 “하늘의 선녀”임에도 불구하고 “변방에 묻혀 산다”. 본래 하늘에 있어야 할 존재가 땅, 그것도 변방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덤에 묻힌 우만각시가 하늘의 선녀-신으로 나타나는 구조와 정확히 전도된 거울상(鏡像)을 이룬다. 이러한 뒤집힌 거울상의 구도는 김려의 시적 전망이 단지 개인적 서사나 상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묻혀 있던 변방의 이름 없는 존재들-민중들뿐 아니라 그들의 신과 사물, 자연과 지리, 모든 존재를 포함한-의 역사를 총체적 차원에서 ‘부활’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우만각시가 『사유악부』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정리하면, ‘우만각시’ 시는 사대부 문인이었던 ‘나=김려’라는 주체가 타자인 변방 민중의 심성과 조우함으로써, 생동하는 대안의 역사를 부활시키려는 문학적 주제를 예고하고, 이를 변주·확장할 가능성을 제시한 텍스트였다고 할 수 있다.

121) “長白之山氣清淑，二千年間英華毓。蓮姬 蓮姬眞天仙，胡爲屈沒沉邊澳。”

IV. 대안의 역사 지향: 꿈과 감응의 시학

본고는 『사유악부』 120수인 ‘우만각시’ 시가 『사유악부』 전체 맥락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탐색하기 위해 2장에서 ‘우만’의 다양한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우만’은 ‘성 밖 지명’, ‘오랑캐 왕의 딸’, ‘침입자인 이민족’, ‘해신이나 거리신의 신격을 갖는 무속의 여신’으로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또한 장소로서 ‘우만’은 국가의 제의와 민간의 신앙, 생각 사, 꿈과 현실, 역사와 무속, 안전과 침입의 경계 공간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우만’의 존재성은 120수를 민속지에 대한 작자의 단순한 관심이나 문인의 낭만적 취향을 반영한 시로만 해석하지 않게 만든다. 그 경계적 장소성과 이민족 신이라는 존재는 민중의 심성에 자리잡은 ‘변방의 특수한 역사’를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를 창작한 김려에겐 어떤 의식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역사적 지향은 무엇이었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3장에서는 『사유악부』 내 변방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남성 영웅들을 다룬 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 시는 북방 민중의 기억이 축적된 지명, 전설, 일화, 무속을 토대로 영웅의 치적을 재현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 기록과는 때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고는 김려가 변방 역사를 함리적, 논리적 이성의 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민중의 심성에 접속시켜 주관적, 상상적으로 재편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북방 영웅 관련 시뿐 아니라 『사유악부』 내 다른 시들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김려의 시에 등장하는 ‘까치’는 민간 습속 관념을 내재하며, 가문의 역사를 거론할 때도 그러한 관념을 활용한다. 꿈과 관련한 시에서는 ‘비합리적, 초월적’ 상상력이 작동하여 자기 내면의 진실을 드러낸다. ‘나무처럼 돌아오라’를 읊은 시 역시 민간 관념을 담고 있다. ‘홍수시’의 경우, ‘물’의 메타포를 분석하여 세계 변화의 갈망과 민중의 전복성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여기서 우만각시의 신격을 재음미하였다.

이처럼 『사유악부』 전반에 걸쳐 민중의 심성과 상상력이 가미되어 있다. 이러한 문학적·역사적 지향성은 120수 우만각시 시에서 뚜렷한 원형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 시에서 김려가 우만각시를 만나는 구체적인 장면은 없

다. 또 김려는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다.’ 우만각시와의 만남은 오직 상상되고 기대될 뿐이다. 여기에는 불가능한 만남을 꿈꾸고 싶은 마음, 깨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지속성이 잠재해 있다.

그러한 마음의 지속성은 『사유악부』 마지막 300수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김려는 이 시에서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생각나/ 슬픔으로 내 혼은 사위어 가고/ 혼이 다 사위어도 다시 생각나/ 미친 듯, 얼이 빠진 듯, 부끄러울지라도”(思之愈久愈不止, 黯然銷魂而已矣. 魂既銷盡思不休, 如癡如狂復如羞. 徊徨繞壁還自語, 腸回九曲苦低頭)라고 괴롭게 읊는다. 그 지을 수 없는 만남의 소망 때문에 꿈속으로 다시 기어들어가 그곳을 영원히 헤매고 싶은 갈증의 마음(不願醒齋), 그것이 『사유악부』의 핵심 정서이자 시작 동기였다고 생각된다.

우만각시도, 연희도, 부령민도, 가족도, 자연물도, 사물도, 좋아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부령’ 그곳, 그리고 김려를 둘러싼 세계 전체-즉 현실이면서 현실이 아닌 꿈속의 그곳, 마음의 그곳-를 영원히 맴돈다. “몸이 타고 심장이 다 말라붙어”(肝肺如焚心如蠹) 재가 될 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불귀신 같은 마음이 詩의 지면 위에서 도처에 출몰한다. 그 마음은 역사와 합리성을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경험 주체가 타자와 만난 역사적 실재 그 자체이기도 했다.

이처럼 김려는 사실·객관·합리·공식·기록 중심의 역사적 관점에서 비껴나간다. 그는 ‘유배’라는 개인적 불운과 회구를 넘어, 변방 민중의 심성과 감응하며, 진실·주관·꿈과 상상·상호성·비공식·구술을 기반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총체적 실재의 역사를 詩를 통해 재구성하고자 했다. 그것은 달리 말해 ‘우리’의 역사이자 ‘마음’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유악부』는 이 때문에 대안의 역사적 ‘實’이면서 동시에 문학적 진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 金鑣, 『思牖樂府』, 『溱庭遺藁』 卷5~6, 한국문집총간 289.
- _____, 『思牖樂府』, 『潭庭叢書』 卷14~15, 영인본 제3책, 학자원, 2014.
- _____, 『過牛鄴閣氏廟』, 『澁玄觀詩草』, 『溱庭遺藁』 卷1, 한국문집총간 289.
- _____, 『題歸玄觀卷後』, 『寒臯觀外史題後』, 『溱庭遺藁』 卷1, 한국문집총간 289.
- _____, 『過黃拓坡, 懷古悵然. 擬驅馬擊長劔, 陶員外翰』, 『擬唐別藁』, 『溱庭遺藁』 卷3, 한국문집총간 289.
- 李肯翊, 『南怡之獄』, 『燃藜室記述』 卷6, 고전종합 DB.
- 李元培, 『訓練院主簿黃公墓碣銘 并序』, 『龜巖集』, 한국문집총간 101.
- 洪良浩, 『北俗』, 『北塞雜徭』, 『耳溪集』 卷2, 한국문집총간 241.
- _____, 『白頭山考』, 『北塞記略』, 『耳溪集 外集』 卷12, 한국문집총간 242.
- 賈誼, 『匈奴』, 『新書』 卷4.
- 杜甫, 『병거행』(『兵車行』); 『세병행』(『洗兵行』); 『팔애시』(『八哀詩』); 『애왕손』(『哀王孫』); 『미피행』(『漢陂行』), 『杜少陵集』.
- 外夷 女眞 土産條, 『大明一統志』 卷89.
- 班固, 『賈誼傳』; 『匈奴傳』 下, 『漢書』.
- 司馬遷, 『平準書』, 『史記』 卷30.
- 朱熹, 『宋名臣言行錄前集』 卷7.
- 『萬機要覽』, 『海防』, 고전종합DB.
- 『制勝方略』(청구기호: 奎貴132)
- 『고려사』 권96, 『윤관열전』, 국사편찬위원회DB.
- <부령부지도>, 청구기호: 奎10684, 간행년대: 1872.
- 『세종실록지리지』 권155, 국사편찬위원회DB.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0권, 『富寧都護府』, 고전종합DB.
- 『여지도서 함경도』, 김우철 역주, 흐름, 2009.
- 『조선왕조실록』, 고전종합DB.

2. 단행본

- 김열규 외, 『동북아 사머니즘 문화』,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소명출판, 2000.

- 김태곤, 『한국무신도』, 설화당, 1989.
- 박종기, 『고려사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2015.
- 박호원, 『한국 마을 신앙의 탄생』, 민속원, 2013.
- 박혜숙, 『담정 김여-새로운 감수성과 평등의식』, 『부령을 그리며(사유악부 선집)』, 돌베개, 1996.
- _____, 『김려의 『사유악부』』, 『한국한시의 장르적 시각』, 소명출판, 2020.
- _____, 『사유악부 국역 및 해제』, 국립한국문학관, 2022.
- 서대석,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소명출판, 2000.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제승방략』, 1999.
- 김려 저, 오희복 역, 『글짓기 조심하소』, 보리, 2006.
- 이능화 저, 서영대 역, 『조선무속고』, 창비, 2008.
- 이옥, 『이옥선집』, 실사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휴머니스트, 2009.
- 임석재, 『한국의 굿- 함경도 망목굿』, 열화당, 1985.
- 뤼시앙 레비브릴, 김종우 역, 『원시인의 정신 세계』, 나남, 2011.
- 카를로 진저부르그, 유제분 역, 『치즈와 구더기』, 문학과 지성사, 2004.
-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1.
- 富育光·王宏剛, 『薩滿教女神』, 遼寧人民出版社, 1995.
- 河內良弘 편저, 『滿洲語辭典』, 松香堂書店, 2018.

3. 논문

- 강민경, 『麻姑 신화의 수용과 전승 양상』, 『동방한문학』 86, 동방한문화회, 2021, 69~96면.
- 고승희, 『조선후기 북관개시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1, 조선시대사학회, 1997, 123~160면.
- _____, 『18~19세기 북관개시의 운영과 성격』, 『한국사연구』 109, 한국사연구회, 2000, 47~77면.
- 김경미, 『여성주의적 독법으로 본 김려의 여성 인식과 시적 형상화』, 『페미니즘 연구』 8, 한국여성연구소, 43~67면.
- 김구진, 『조선시대 6진 방어전략 『제승방략』 체제 연구』, 『백산학보』 71, 백산학회, 2005, 341~398면.
- _____, 『조선 시대 女眞에 대한 정책』, 『백산학보』 88, 백산학회, 2010, 265~302면.
- 김세용, 『선조조 니탕개란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162면.
- 남의현, 『多元의 經濟構造를 통해 본 女眞社會의 特徵 -15~17세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5, 인문과학연구소, 2012, 227~256면.

- 박준원, 『담정 김려 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1~118면.
- 박현숙, 『이옥 소품문의 작품 세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90면.
- 신상필, 『조선조 야사의 전개와 『한고관외사』의 위상』, 『대동한문학』 22, 대동한문학회, 2005, 203~231면.
- 유영옥, 『선조조 공신 海槎 李侃의 抗賊 활동』, 『역사와 경계』 110, 부산경남사학회, 2019, 73~112면.
- 이종주, 『만족(滿族) 신화 자료와 연구 신들의 본풀이, 만주 신화-『한족신화고사(漢族神話故事)』해설을 겸하여』, 『한국고전연구』 4,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383~403면.
- 한성주, 『조선의 對女眞關係와 6鎭지역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49, 한일관계사학회, 2014, 3~42면.
- 홍진옥, 『담정김려문학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271면.

Kim Ryeo(金鏞)'s Uman Gakshi(牛鬲閤氏)

- Rewriting History at the Boundary: A Poetics of the Mind -

Ahn, Ji-Min

This paper examines Damjeong(潭庭) Kim Ryeo(金鏞, 1766~1821)'s literary and historical orientation that penetrates the entire work with the starting point of the Uman Gakshi(牛鬲閤氏) in the 120th poem of "*Saenyakbi*"(思擘樂府).

The term Uman appears in the "*Saenyakbi*"(思擘樂府), "*Uidanghyulgo*"(擬唐別藁), and "*Gwilyeongwansido*"(遼玄觀詩草). As analyzed in Chapter 2, Uman was the name of a goddess belonging to an immigrant tribe, regarded as the daughter of a barbarian king, and was the focus of a street ritual intended to ensure the safety of merchants traveling nearby. It was also a powerful tribe that invaded the northern region of Joseon(朝鮮), as well as the name of a valley located about 10 ri(里) north of Buryong(富寧).

As a Confucian writer, Kim Ryeo demonstrated a profound interest in beings that strongly embodied otherness, historicity, and shamanistic traits. This suggests that the representation of frontier history within the realm of "*Saenyakbi*"(思擘樂府) could take diverse forms.

Accordingly, the descriptive methods of poems depicting the great deeds of historical heroes who defended the northern frontier in "*Saenyakbi*"(思擘樂府)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se poems generally draw upon geographical names, legends of heroes, anecdotes, shamanistic rituals, and folk customs. Moreover, the discourse often exhibited characteristics that at times contradicted official historical records, presenting narratives as if they were based on the perspectives or collective memory of the northern peoples, including immigrant group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paper concludes that "*Saenyakbi*"(思擘樂府) seeks to represent a history rooted in truth, dreams, imagination, mutuality, informality, and orality by resonating with the mentalité of the frontier people. In this context, the 120th poem can be interpreted as a foreshadowing, hope, and

symbolization of an encounter with the other northern peoples' world.

Keywords: Kim Ryeo(金鑣), “*Sayuakbi*”(思牖樂府), Uman Gakshi(牛顰閣氏),
mentalité of the people, boundary, alternative history, dream and resonance

접수일자: 2025. 3. 30.

심사기간: 2025. 4. 1.~2025. 5. 10.

게재결정: 2025. 5. 10.

